Life p/15

쉽게 입는 가을 캠퍼스 룩

metro

메트로 2014년 8월 29일 금요일 제30 호 www.metroseoul.co.kr

Sports p/23

손흥민 챔스 2경기 연속 골

텅 빈 국회 "의원들 다 어디갔나요" 세월호 특별법 문제로 여야가 대치해 국회가 파행된 가운데 28일 일산 관광객이 국회 본회의장을 관람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동통신 신규 가입비 절반으로

가계통신비 세계 평균 2배…내년 말엔 전면 폐지
취약계층 데이터 제공량 확대 등 혜택 크게 늘려

미래부 경감방안 마련

30일부터 이동통신사 신규 가입비가 50% 인하되고, 사회 취약계층의 요금제 혜택이 강화된다.

미래창조과학부와 이동통신 3사는 가입비 인하 등의 내용을 담은 가계통신비 경감방안을 마련하고 30일부터 순차 적용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미래부가 지난 6월 발표한 '2014년 가계통신비 경감 방안'에 따른 것이다. 미래부는 내년 말까지 가입비를 전면 폐지할 방침이다.

우리나라 가계통신비는 매년 5~10%씩 상승했고, 이는 세계 평균의 두배를 상회한 수치다. 소비자는 통신사를 바꿀 때마다 매번 수만원의 신규 가입비도 내야 해 적잖은 부담을 느껴왔다.

가계통신비 경감방안에는 ▲신규 가입자의 이동통신 가입비 50% 인하 ▲청각·언어 장애인 대상의 신규 요금제 출시 ▲취약 계층 데이터 제공량 확대 등이 포함된다. 이 방안이 시행되면 통신3사 이용자들의 통신비 부담은 연간 1400억원 이상 절감될 전망이다.

SK텔레콤은 이동통신 가입비를 기존 2만1600원에서 50% 낮춘 1만800원으로 인하한다. 업계 점유율 50%를 보유한 SK텔레콤은

통신3사 신규 가입비 변화

	SKT	KT	LG U+
인하 전	2만1600원	1만4400원	1만8000원
인하 후	1만800원	7200원	9000원

자사 고객의 통신비 부담이 연간 약 700억원 줄어들 것으로 기대했다.

또 청소년·어르신·장애인 고객의 데이터 사용수요가 증가한 점을 고려해 다음달 1일부터 해당 고객의 데이터 기본 제공량을 확대한다. 데이터 제공량 확대 대상은 청소년 요금제 6종, 어르신 요금제 2종, 장애인 요금제 4종이다. 추가되는 데이터 제공량은 요금제별로 150MB에서 최대 900MB다. 해당 요금제 가입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으로 데이터 확대 혜택을 받는다. 특히 장애인 요금제 4종, 어르신 요금제 2종이 다음달 말 새로 출시된다.

KT의 이동통신 가입비는 1만4400원에서 7200원으로 낮춰진다. KT는 가입비 인하를 통한 총 절감액이 연간 300억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했다.

KT는 장애인 요금제를 중점적으로 확대하며 오는 31일 청각·언어장애인 전용 신규 서비스 'LTE-손말나눔69' 요금제를 출시할 예정이다. 이 요금제는 음성통화가 어려운 고객을 위해 총 16시간의 영상통화를 제공하며 이월이 가능한 데이터 5GB를 추가 제공한다. 이와 함께 사회 취약 계층 대상의 스마트 요금제 데이터 증대는 다음달부터 'LTE-골든 275', 'LTE-소리나눔' 등 총 8개 요금제로 확대된다. 대상 요금제에 따라 최대 250MB까지 제공하며 기존 고객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LG유플러스의 가입비는 기존 1만8000원에서 9000원으로 줄어든다. LG유플러스는 350억원의 경감 효과를 기대했다.

LG유플러스는 사회적 약자층을 위해 기존 요금제보다 음성통화량 혜택을 늘린 장애인 전용 42 요금제를 29일부터 추가로 선보인다. 다음 달에는 LTE 데이터 제공량을 강화한 시니어 34요금제를 출시하고, 선불 요금제의 음성통화 요율도 인하한다.

업계 관계자는 "가계통신비 경감정책을 통해 고객의 실질적인 통신비 절감 효과를 높이고 취약 계층의 정보 격차 해소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11면>

/장윤희기자 unique@metroseoul.co.kr

미아역 일대 개발 '탄력' 받나

역세권 특별계획구역 지정

서울시가 강북구 미아역 일대를 특별계획(가능)구역으로 지정하는 계획을 통과시켰다. 대상지는 강북구 미아동 197-5 일대로 미아역과 가깝고 개통 예정인 우이선 경전철이 지나가는 곳이다.

28일 서울시는 "미아역 일대는 역세권으로서의 기능 강화가 필요한 곳으로 전날 도시공동위원회를 열어 이를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시는 합리적인 토지 이용을 위해 미아역과 가까운 5개 블록 중 주민 동의를 받은 1개 블록은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한다. 나머지는 앞으로 사업계획이 구체화되면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특별계획가능구역으로 지정했다.

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권장용도와 용도 완화 계획을 마련하는 한편 높이계획도 완화해 건축 여건을 개선했다.

한편 서울시는 구로구 천왕동 연지마을(10번지 일대)에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했다. 대상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전부터 자연적으로 형성된 소규모 집단촌락으로, 주거환경이 열악해 환경 개선이 시급한 곳이다. /김민준기자 mjkim@

더 알찬 정보와 주요 기사 및 상세 기사를 온라인 사이트(www.metroseoul.co.kr)에서 확인하세요

기동순찰대 합동 발대식 28일 오후 서울 송파구 방이동 올림픽공원 광장에서 서울·경기, 인천 지역 6개 경찰서 기동순찰대의 합동발대식이 열리고 있다. 기동순찰대는 경찰서 전체를 관할구역으로 하면서 필요에 따라 인접 경찰서까지도 자동 출동해 근무하는 탄력적 운영을 바탕으로 순찰대장(경감)과 3~4개 팀의 순찰팀장(경위), 10명 내외의 순찰관이 배치된다. /연합뉴스

"석촌 동공 9호선 공사 때문"

조사단 결론에 서울시 특별관리·삼성물산 "즉시 안전조치"

서울 시민을 공포로 몰아넣은 석촌지하차도에서 발견된 총 7개의 크고 작은 동공(도로 밑의 구멍)이 자연적으로 발생한 '싱크홀'이 아닌 지하철 9호선(919공구) 실드터널 공사에 따른 도로함몰(도로상의 구멍) 때문이라는 결론이 났다.

서울시와 민간조사위원회는 28일 '서울시 도로함몰 특별대책'을 발표하면서 "싱크홀은 대체로 석회암지대 등의 지반에서 물과의 화학작용으로 지반이 녹거나 침식돼 발생하지만 서울은 주로 화강·편마암 지질로 싱크홀이 발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조사단장인 박창근 교수는 "지난 5일 첫번째 동공이 발생한 이후 3주 가까이 진행된 조사위 조사 결과 함몰 지역은 과거 한강과 근접해 있어 모래, 자갈의 연약한 지층이 형성돼 있다"며 "그러나 삼성물산은 충분한 지반보강을 하지 않고 공사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실드 공법은 원통형 기계인 실드TBM을 회전시켜 흙과 바위를 부수면서 수평으로 굴을 파고들어가는 방식이다. 삼성물산은 지하차도 구간에서 공사를 시작한 지난해 5월부터 최근까지 애초 예측한 굴착량 2만 3842㎥보다 14% 많은 2만 7159㎥의 토사를 파낸 것으로 조사됐다.

동공 발생의 또 다른 원인으로 추정됐던 제2롯데월드 공사 상·하수도관 등은 직접적인 영향이 없다고 결론지었다.

시는 석촌지하차도 일대를 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하고 실드터널 공사가 진행 중인 9호선 현장에 계측기 703개를 설치해 모니터링을 할 계획이다. 주변 건물과 지하차도 구조물에도 53개의 계측기를 추가로 설치한다. 또 지하철 9호선 3단계 공사가 남아있는 구간은 전문가의 자문을 구해 확실한 안전대책을 수립한 후 공사를 허가할 방침이다.

지하철 9호선 시공사 대표로 참가한 김명 삼성물산 부사장은 "이번 조사단의 발표를 수용하겠다"며 "사고 구간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고 신속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별도로 서울시는 연평균 681건이 발생하고 해년 그 발생빈도가 증가하고 있는 도로함몰과 관련해 주요 원인인 노후 하수관 등을 집중 관리한다. 내년 하수관로 보수 예산은 올해보다 117억원 많은 2200억원으로 책정했다.

또 내년부터 대형 공사장에 도로함몰 전담 감리원을 배치하고 하루 지하수 배출량이 100t 이상인 시설에 대해서는 감시를 강화한다. 지반탐사장비(GPR) 2대를 추가 도입해 도로함몰지도도 구축하기로 했다. /김민준기자 mjkim@metroseoul.co.kr

오디션 참가자 능력에 초점 맞춰야

기자 수첩
양성운
<연예스포츠부 기자>

지난 2009년 국내 최초로 시도된 공개 오디션 프로그램 '슈퍼스타K'의 영향으로 다양한 장르의 오디션 프로그램이 등장하고 있다.

하지만 '공개 오디션 프로그램과 논란'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인 것 같다. 시간이 지날수록 논란은 더욱 확산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최근 한달 새 두 건의 비슷한 논란이 겹치면서 방송가요계가 시끌벅적하다. 시작은 엠넷 '쇼미더머니3'의 출연자 육지담이었다. 지난달 '쇼미더머니3' 방송 후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육지담의 사생활을 담은 게시물이 게재돼 큰 파장이 일었다. 논란이 확산되자 육지담은 과거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다고 사과했다.

육지담 사건이 잠잠해지자 이번에는 지난 22일 첫 방송을 시작한 엠넷 '슈퍼스타K6'의 송유빈이 도마에 올랐다. 송유빈은 아이유 닮은꼴 외모와 가창력으로 주목받았다. 그러나 방송 직후 온라인 커뮤니티에 송유빈의 과거 모습이 담긴 사진과 글이 올라와 논란이 됐다. 학생 신분으로 부적절한 행동을 한 모습과 그가 남긴 것으로 추정되는 욕설 등이 공개됐다. 이에 송유빈은 "과거에 제가 한 행동들은 죄송합니다. 지금은 술 담배 안 해요. 했던 건 인정하니까 정말 죄송합니다"라고 즉각 해명했다.

이처럼 참가자의 과거 논란은 통과의례처럼 반복되고 있다. 대중의 관심이 높은 프로그램인 만큼 향후 사회적으로 미칠 영향도 배제할 수 없는 건 사실이다. 프로그램 특성상 참가자의 인성도 중요하지만 '음악성'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미국의 대표 오디션 프로그램 '아메리칸 아이돌'의 경우 참가자의 과거 행적보다 능력을 가지고 평가한다. 문화적인 차이는 존재하지만 과거 논란으로 프로그램의 본질이 흐려지는 부분은 안타까울 뿐이다.

주석 물가 점검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가 28일 오전 서울 송파구 가락시장을 찾아 추석물가 점검과 상인들 애로사항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7·30 당선자 한달째 '의원 선서' 못해

상임위·당내 활동은 활발

세월호특별법 협상으로 국회 일정이 멈추면서 7·30 재·보궐 선거로 국회에 입성한 여야 의원 15명이 한 달째 의원 선서도 못하고 있다.

재·보선에서 당선된 후보는 곧바로 의원 신분을 갖기는 하지만 국회 파행이 길어지는 바람에 본회의에서 정식 신고식도 치르지 못한 채 의정 활동에 참여하는 '비정상적 상황'에 직면했다. 당선인들은 일단 각자 상임위 활동과 당내 활동에는 참여하고 있다.

전남 순천·곡성에서 당선된 새누리당 이정현 의원은 당 최고위원에 지명돼 전방위로 뛰고 있다. 같은 당 나경원 의원 역시 최근 서울시당 위원장으로 선출됐고, 정미경 의원도 당 홍보본부장에 임명됐다.

국방위에 배정받은 새정치연합 권은희 의원은 선임병의 가혹 행위 끝에 숨진 윤 모 일병이 근무한 경기 연천의 28사단을 이달 초 방문, 현장 검증을 벌였다. /조현정기자 hhjj

뉴스&뉴스

폭우 피해 영남 일부 특별재난지역 지정

● 정부와 새누리당은 28일 폭우로 큰 피해가 발생한 영남 일부 지방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진영 국회 안전행정위원장, 조원진 의원과 박경국 안행부 제1차관, 조성완 소방방재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같이 결론지었다.

잇따른 감사관 비위에 '특별감찰팀' 신설

● 감사원이 잇따른 감사관들의 비위와 관련,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대인 감찰 활동을 전담하는 특별감찰팀을 신설하는 등 내부 통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우선 특별감찰팀을 신설, 전방위 상시 감찰시스템을 가동한다. 특별감찰팀은 비리 취약 업무 담당자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하면서 2인1조로 암행 감찰을 하게 된다.

"윤일병 사건 재판관할 이전 내주 초 결정"

● 국방부는 28사단 윤 일병 폭행 사망 사건과 관련, 가해 병사 변호인이 재판부를 3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으로 옮겨 달라고 신청한 것에 대해 "다음주 초에 결정될 것"이라고 28일 밝혔다. 또 "재판관할권 문제가 결정되고 공판 일정이 잡히는 대로 목격자인 김 일병에 대한 증인 요청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토부 과장급 외부회의 참석 금지

세종식 업무 방식 적용

국토교통부는 과장급의 외부회의 참석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10년 이상 근속 직원은 한 달간 '안식월' 휴가를 쓸 수 있도록 하는 등 일하는 방식을 '세종식 업무 방식'으로 전환하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김경식 국토부 1차관은 "정부 부처의 세종 시대가 시작된 지 2년이 됐지만 직원들이 세종시에 안착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과장급은 외부회의 참석을 최소화하고 세종청사를 지키도록 할 방침이다. 서울 등 외부에서 열리는 회의에는 실·국장과 그 실·국의 주무과장만 참석한다. 타당한 사유가 있을 때는 과장도 서울 회의에 참석할 수 있다.

효율적인 회의를 위해 매주 열리는 국토부 간부회의의 보고자료를 만들 때는 보고자인 실장·국장·정책관이 직접 보고 항목을 4개 이하로 선정하도록 했다. /조현정기자

적자에도 '상납'은 꾸준히…

청해진해운, 매년 유병언 일가에 7억 지급

세월호 도입으로 적자에 허덕이던 청해진해운이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과 그 일가에 연간 7억원을 지급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지법은 28일 김한식 대표이사 등 청해진해운과 우련통운 임직원 11명에 대한 공판에서 청해진해운 팀장급 직원 2명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했다.

검사는 청해진해운 기획관리팀장 김모(50)씨에 대한 신문에서 "유 전 회장에게 매달 1000만원과 기타 급여 등 연봉 1억8000만원을 비롯해 유 전 회장의 형 병일씨, 장남 대균씨, 차남 혁기씨 등에게 고문료와 상표권 사용료 등 매년 7억원을 지급했다"며 이 사실을 알았느냐고 물었다.

김씨가 "모르겠다"고 답하자 검사는 "세월호와 오하마나호에서 생기는 현금 매출 일부를 유 전 회장에게 전달했다"며 "두 여객선의 매점 물건 구입 목록을 확인하면서 예상된 매출이 들어오지 않으면 동료 직원에게 확인하지 않았느냐"고 재차 물었다.

김씨는 팀장 업무 중 회계 분야는 결재를 하기는 했지만 다른 부장이 직접 김한식 대표에게 직접 보고했다고 진술했다.

지난해 11월 청해진해운 간부 직원들이 작성한 사직서 작성을 주도한 김씨는 사직서에 등장하는 '최고 경영자'가 누구냐고 묻자 "심정적으로 유 회장이라 생각했다"며 유 전 회장이 청해진해운 최고 경영자임을 재확인시켰다.

/윤다혜기자 yrh@metroseoul.co.kr

도박하려 명품구두 절도 서울 송파경찰서는 28일 도박 자금 마련을 위해 구두 매장에 침입해 명품 구두 60켤레, 반지갑 등 4000만원 상당의 물품을 훔친 혐의(절도)로 피의자 박모씨를 구속하고 작업인자와 장물 운반책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연합뉴스

서울시 자사고 평가 내달 4일 발표

"지정 취소 대상은 사전협의 교육부와도 협의"

서울시교육청이 올해 재지정 평가 대상인 자율형 사립고에 대한 운영성과 종합평가를 마치고 다음달 4일 결과를 발표한다.

서울교육청은 "올해 재지정 대상인 14개 자사고에 대한 운영성과 종합평가를 마쳤다"며 "지정 취소되는 자사고 등을 비롯한 평가 결과를 9월 4일 발표하고 교육부에도 협의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앞서 시교육청은 6개 평가영역 13개 항목, 30개 평가지표를 적용해 19일부터 14개 자사고에 대한 종합평가를 진행했다.

평가지표는 조희연 교육감의 공약을 반영할 전문가와 평가 전문가, 교육 전문가 등이 개발했고 평가는 자율학교 지정운영위원회가 시행했다.

시교육청은 이후 지정 취소 자사고를 대상으로 사전 협의와 청문 절차 등 후속조치를 진행하며 교육부에 협의를 요청하게 된다.

자사고 지정협의에 관한 훈령에는 교육부가 2개월 이내에 동의 또는 부동의 의견을 내면 자사고 재지정 여부가 최종 결정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교육청은 '지정 취소에 대한 최종 권한이 교육감에 있다'고 보는 반면 교육부는 '교육부 장관과 협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윤다혜기자

여름 장마보다 무서운 '늦장마'

8월 강수량 예년 2배

최근 한달간 강수량이 장마 기간의 2배 이상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남부 지방에는 장마 때 강수량의 3배가 넘는 '물폭탄'이 쏟아져 도로가 침수되고 사상사고가 발생하는 등 현격 물적 피해가 심했다.

28일 기상청에 따르면 장마가 끝난 7월 30일부터 26일까지 전국 평균 강수량은 699.8㎜로 올해 장마 기간 평균 강수량(291.3㎜)의 2.4배나 된다.

이 기간 전국 45개 기상관측 지점 가운데 경남 남해에 775.2㎜로 가장 많은 비가 내렸다. 중부 지방 역시 이 기간 장마 때 강수량(145.4㎜)보다 1.63배 많은 237.8㎜의 비가 내렸다.

기상청 관계자는 "올해 장마 기간보다 많은 비가 집중적으로 내린 것은 정작 장마철에는 장마전선이 활성화되지 못했지만 한여름 더위가 한풀 꺾인 시점에 장마전선이 우리나라에 오래 머물렀기 때문"이라며 "장마가 끝난 후에도 비 피해에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다혜기자

해상 인명구조 훈련 28일 부산 수영만 앞바다에서 부산지방해양경찰청 주관으로 해양사고 대비 유관기관 합동대응 훈련을 마련했다. 이번 훈련은 부산항으로 입항하는 다중 여객선에서 딜이나 선체가 침수 직이라는 해상사고를 가정해 진행됐다. /남해해양경찰청 제공

부산 폭우때 119 '다운'

내년 백업센터 본격구축

지난 25일 부산에 기록적 폭우가 쏟아질 당시 119는 1시간 동안 1900통에 이르는 신고전화가 폭주해 회선이 불통 상태에 빠졌다.

소방방재청은 이번 부산 집중호우 상황처럼 119 신고가 폭주할 때를 대비한 백업시스템을 내년부터 본격 구축하기로 하고 올해 시스템 설계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28일 밝혔다.

방재청은 내년부터 3년간 약 40억원을 투입해 '119 비상접수 및 백업센터'(가칭)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 센터가 구축되면 특정 시도 소방본부에 119 신고전화가 쇄도, 접수 한계상황에 다다른 경우 신고전화가 자동으로 센터로 넘어가게 된다.

/김현준기자

창원버스 사고 20분 전 10명 하차

창원 사고버스가 사고 직전 승객 10명을 하차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남경찰청이 28일 발표한 사고버스 행적을 보면 71번 시내버스는 25일 오후 2시2분께 오산마을 정류장을 통과한 후 오후 2시3분께 정상 노선인 진동 구도로로 진입하려 했으나 토사 유출로 교통이 통제되자 자동차전용도로인 14번 국도로 차를 몰았다.

이어 오후 2시7분께 진북터널을 통과해 차량 정체로 약 7분간 정차하다 오후 2시15분께 대평나들목 방면으로 돌렸다. 그리고 오후 2시24분께 진동가구백화점 인근 도로가 침수된 것을 확인하고 약 4분간 정차했다. 이후 버스는 후진해 방향을 바꾼 뒤 승객 10명을 하차했다. 사고가 나기 약 20분 전이다.

승객이 내린 후 버스는 회동삼거리로 되돌아와 오후 2시42분께 덕곡천 농로로 진입했다. 이때만 해도 진입 방향의 도로는 침수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4분 뒤인 오후 2시46분께 사고가 난 곳에서 약 50m 떨어진 곳에 도착해 5분간 정차했고 자랑 전면에 도로가 침수돼 있었다. 이어 20여m를 이동하면서 덕곡천으로 휩쓸려 사고가 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버스회사의 계엄과 관련해 평소 또는 사고 당일 안전 조치가 적절했는지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현준기자 mikim@

장애인을 노예처럼…

염전 업자들에 실형 선고

장애인들에게 좋은 일자리를 주겠다는 말로 꾀드겨 외딴 섬의 염전으로 데려온 뒤 수년간 노예처럼 부린 이른바 '염전 노예 사건' 가해자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8일 서울남부지법 제11형사부는 전라남도 신안군 염전에서 장애인 2명을 수년간 월급도 주지 않은 채 강제 노역시키고 수시로 폭행까지 한 염전 운영자 홍모(49)씨에 대해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큰 돈을 벌게 해 주겠다'고 속여 염전으로 데려간 직업소개소 직원 고모(69)씨와 이모(63)씨에 대해서도 각각 징역 2년,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조현정기자 jhj@

아파트서 버젓이 불법 도박

일본에 서버 두고 100억대 스포츠토토 운영

제주지방경찰청사이버수사대는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해 수익원을 챙긴 혐의(국민체육진흥법 위반)로 사이트 총괄 운영자 박모(32)씨를 구속, 김모(37)씨 등 회원 모집책과 종업원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 등은 2013년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경기도 의정부시 일대 오피스텔과 아파트 등지에서 일본에 서버를 둔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 2개를 개설, 블랙잭 디수를 상대로 4억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회원 모집책을 통해 3000여 명의 회원을 모집, 국내외 스포츠 경기 결과를 예측해 배팅하는 100억원대의 도박 사이트인 '위 명 다트' 와 '티쿠' 를 운영했다.

경찰 조사결과 3000만원 이상 배팅한 회원은 54명, 1000만원 이상 배팅한 회원은 213명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박씨 등은 모 스포츠 중계 인터넷 사이트 회원들에게 쪽지를 보내 추천인 ID를 받은 사람들을 대상으로만 회원으로 가입시키는 방법으로 경찰의 수사를 피했다.

경찰은 사이트를 제작한 전문 프로그래머와 대포 통장 판매책, 고액 도박자 등에 대해서도 수사를 하고 있다. 또 "2차 범죄 예방을 위해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조현정기자 [illegible]

/국민생활체육 트레킹학교 제공

바쁜 삶 속 '트레킹학교' 인기

직장인·청소년 등 단체교육 접수 늘어

바쁜 삶 속에 즐기면서 교육도 받을 수 있는 국민생활체육 트레킹학교가 매년 인기다.

국민생활체육회가 주최하고 국민생활체육전국등산연합회가 주관하는 트레킹학교는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체육진흥공단의 후원을 받아 트레킹 교육 프로그램을 열고 있다.

회사와 학교, 청소년 단체(시설)에서 운동이 부족한 직장인과 청소년, 어르신들을 상대로 접수를 받고 있으며 단체교육 접수도 늘고 있다.

트레킹학교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1일 트레킹교육을 12월까지 주말마다 연다.

등산 관련 지격증과 응급처치 자격증 등을 보유하고 있는 전문 강사팀이 올바른 장비 사용법, 호흡법·보행법, 응급처치와 같은 트레킹 기초에 관한 이론과 실기과정을 교육중이다.

트레킹학교는 무작정 걷는 것보다 전문적으로 교육받으며 걸을 수 있어 더 효과적이다.

특히 트레킹은 전 국민이 언제 어디서나 즐길 수 있는 운동이기 때문에 손쉽게 접할 수 있다.

하지만 올바른 트레킹을 하지 않으면 관절·근육 등 몸에 무리가 가는 부상 위험이 따른다.

트레킹학교 문의와 단체신청은 전화(02-2272-2744)로 연락하면 된다. 교육일정 및 신청은 홈페이지(www.sportal-edu.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다혜기자

"간병인, 치매환자 묶는 것 인권침해"

간병인이 전문의료인 지시 없이 임의로 치매환자의 손을 묶어놓는 행위는 인권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이 나왔다.

경기도 일산의 한 요양병원에 입원한 치매환자 A씨(85)의 딸은 간병인이 환자의 몸을 고정하거나 묶는데 사용하는 끈의 일종인 신체억제대로 A씨의 손을 침대에 묶어놓은 모습을 봤다며 지난해 9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간병인 B씨는 "A씨가 침상을 흔들면서 기저귀의 소변줄을 제거하고 침상에서 내려오려고 해 안전을 위해 손목을 침대에 묶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간병인이 의사의 지시없이 자체판단으로 자신의 의사를 제대로 표현할 수 없는 피해자를 임의로 침상에 묶은 행위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상 학대에 해당하며 헌법 12조가 보장하는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라고 판단했다.

/신다혜기자

경희사이버대-구리농수산물시장 협약

경희사이버대학교는 최근 '경희사이버대학교-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 산학협동 협약식'을 가졌다.

이번 협약은 양 기관이 대한민국 농수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 내용에는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 유통종사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위탁교육과 대학 또는 대학원 입학시 수업료 감면 등의 혜택이 포함됐다.

협약 대상은 구리농수산물공사와 농협구리공판장·구리청과(주)·(주)인터넷청과·강북수산·수협구리공판장·중도매법인조합·장연합회 등이다.

21일 오전 11시 구리 농수산물공사 상황실에서 경희사이버대학교-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 산학협동 협약식을 가졌다. 안병진 경희사이버대학교 부총장(왼쪽 오른쪽 네번째)을 포함한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경희사이버대 제공

이날 안병진 경희사이버대 부총장, 이현수 외래 관리처장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엄마 여기 봐! 8월 오전 서울 관악구 관악로 서울대학교에서 열린 제[illegible]회 후기학위수여식에서 한 아이가 졸업가운을 입은 엄마의 모습을 카메라에 담고 있다.

/연합뉴스

1천억대 횡령 윤석금 웅진 회장 징역 4년

"회생절차 통해 부채 해소 노력"…법정 구속 피해

1000억원대 사기성 기업어음(CP)을 발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웅진그룹 윤석금(68) 회장에게 징역 4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은 28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와 배임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윤 회장에 대해 사기성 CP를 발행한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으나 횡령·배임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기업의 회장으로 인사권 등을 가진 지위에 있는 윤 회장이 그 영향력을 이용해 우량 계열사 등을 통해 부실 계열사인 극동건설과 사실상 개인회사인 웅진캐피탈의 자금난을 해소하기 위해 회사에 피해를 입혔다"며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웅진그룹은 (주력 계열사인) 웅진코웨이의 매각 작업 등을 통해 유동성을 확보하려고 노력했다. 실제 회생절차에 들어가면서 부채 상당 부분이 해소됐다"고 설명하며 "피해 회사들에 대한 구체적인 변제 계획을 제출했고, 향후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서도 법정구속은 하지 않기로 한다"고 덧붙였다.

이로써 윤 회장은 불구속 상태로 항소심을 준비할 수 있게 됐다.

/윤다혜기자 [illegible]

추석 불법 농축수산물 신고 최고 10억 보상

국민권익위원회는 다음달 12일까지 추석 명절 부정 농축수산물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신고 대상은 수입 농축수산물을 국내산으로 허위 표시하거나 미표시해 불법 유통·판매, 유통기한을 위조하거나 기한이 지난 제품을 판매하는 행위 등이다.

신고는 서대문구의 권익위 부패·공익침해신고센터를 방문하거나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권익위 홈페이지(www.acrc.go.kr)·공익신고앱 등을 통해 할 수 있다.

신고자에 대해서는 신고 접수 단계부터 철저한 비밀 보호와 신분 보장을 통해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며 처리 결과에 따라 최고 10억원의 보상금을 지급한다.

/조현정기자

닭·오리 축사 분뇨배출 허가 받아야

내년 3월부터 3000㎡ 이상 닭·오리 축사를 운영하는 농가는 가축분뇨 배출 허가를 받아야 하고, 양과 돼지 등을 일정 마릿수 이상 방목해 사육하려면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해야 한다.

환경부는 29일부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8일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은 가축분뇨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3000㎡ 이상 닭·오리 축사를 신고에서 허가 대상 배출시설로 조정했다. 양·돼지 등을 일정 마릿수 이상 방목해 사육하려면 지자체에 배출시설 신고를 하도록 했다. 가축별 기준은 돼지 36마리 이상, 소·젖소·말 9마리 이상, 닭·오리 1500마리 이상, 양 25마리 이상, 사슴 25마리 이상이다.

/신다혜기자

ㄱ

국가대표

[Member of the National Team]

명 ❶ 국가를 대표하여 국제경기에 출전하고 활약하는 스포츠팀 또는 선수들을 일컬음

서로 다른 종목이지만 그들에겐 국가대표가 되는 같은 꿈이 있습니다
더 많은 선수들이 꿈을 이룰 수 있도록 현대자동차그룹이 함께하겠습니다
9월, 아시아를 놀라게 할 우리 선수들의 선전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 양궁, 야구, 축구, 배구, 농구 등 다양한 스포츠구단 운영을 통해
대한민국 스포츠 경쟁력을 키우는 현대자동차그룹 }

metroglobal

전 세계 27개국 220개 도시에서 발행되는 메트로신문은 한 주 동안 화제가 된 해외 메트로 주요 기사들을 소개합니다

metro HongKong

4呎校長鬥志

metro France

A vendre : appartement vue sur 300 millions d'euros

모나코 펜트하우스 매물 4조

모나코의 한 펜트하우스가 30억 유로(약 4조원)에 매물로 나와 주목을 받고 있다. 170m 높은 지대에 있는 이 펜트하우스는 총 5층으로 3500제곱미터에 달한다.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높은 곳에 있기 때문에 에펠탑 45~49층과 맞먹는다. 무엇보다 가장 눈에 띄는 점은 미끄럼틀이다. 펜트하우스 3층에서 미끄럼틀을 타면 야외 수영장으로 바로 내려올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다.

metro Brazil

Operação PF prende 11 por pornografia na internet

아동 포르노 공짝마! 11명 검거

브라질에서 아동 포르노를 공유한 사람들이 대거 검거됐다. 연방 경찰은 인터넷에 미성년자가 등장하는 포르노를 업로드하고 공유한 11명을 구속했다. 이번 작전은 경찰이 온라인 상의 소아성애자를 적발하고 추적 틀으려는 7번째 작전으로 금년 1월부터 실시됐다. 여러 주의 경찰 230명이 동원된 이번 사이버 작전에는 주로 SNS를 통해 소아와 청소년의 나체 사진과 영상을 공유하는 이들이 수사선상에 올랐다.

metro Russia

바쁜 환자들 위해 함께 차타고 상담

바쁜 환자들을 위해 달리는 차 안에서 상담을 하는 심리치료사 마리아 레베디노바가 화제다.

레베디노바는 "환자들이 자투리 시간을 알뜰하게 쓸 수 있도록 출퇴근길에 차로 함께 이동하며 상담한다"며 "드라이브를 즐기며 고민거리를 털어놓는 환자가 꽤 된다"고 말했다.

그는 "가족이나 친구, 연인에게 오랫동안 말하지 못했던 고민을 자동차라는 공간에서 털어놓고 해결할 수 있다"며 "좁고 낯선 공간이 환자들에게 안정감을 준다"고 이동 상담소의 장점을 설명했다.

레베디노바는 "자동차 상담소는 그 동안 병원을 찾고 싶었지만 쉽게 용기를 내지 못했던 사람들에게 특히 도움이 된다"며 "정신과 가는 일을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자동차 상담소는 병원에 오기 힘들거나 껄끄러워 하는 환자들이 있다면 찾아가겠다라는 단순한 발상에서 시작됐다"며 "자동차 상담소를 찾는 환자들이 예상보다 훨씬 많다"고 덧붙였다.

레베디노바는 "자동차 상담소의 첫 환자는 가족 간 갈등으로 고민하던 중년 남성이었다"며 "한 시간 가량 진행된 상담시간 동안 모스크바 시내를 돌아다녔다"고 했다. 그는 "찌푸리고 울상이었던 남성의 얼굴이 자동차에서 내릴 때는 한층 밝아졌다"며 "누군가를 도울 수 있다는 뿌듯함에 자동차 상담을 계속하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최근 러시아에서는 자동차 상담소 이외에도 자동차 레스토랑, 자동차 디스코텍, 자동차 사우나 등 도로 위에서의 즐거게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이색 장소가 인기를 얻고 있다.

/볼리야 푸티가나 기자·정리=조선미기자

키 140cm '난쟁이 교장' 감동

시골마을서 30년간 학생들 부모 노릇…"선생은 사람을 기르는 사람"

키가 140cm도 되지 않는 '난쟁이 교장선생님'의 가르침이 큰 감동을 주고 있다.

중국 윈난성 마관현에서 태어난 숭자오구이(熊朝貴·50)는 어릴 때 선생님의 숭고한 가르침에 감명을 받아 선생님이 되기로 결심했다. 고향이 매우 외진 곳에 있고 낙후됐기 때문에 고향 아이들이 배움을 통해 운명을 바꾸고 산촌을 떠나 더 넓은 세상을 보게 하는 것은 그의 가장 큰 꿈이 됐다.

1985년부터 지금까지 30년 동안 고향에서 교편을 잡고 있는 그는 현재 마룽초등학교의 교장으로 6학년 수업과 모든 행정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그는 아이들에게 단순한 선생님이 아니라 부모다. 전교생 275명인 학교에서 대부분의 학생 부모들은 외지로 일을 하러 나간다. 그는 부모 대신 아이들의 옷가지 등 생활 필수품을 구입해준다. 마을에 병원이 없는 터라 아이들이 아프면 약을 챙이 먹이는 것도 그의 몫이다.

아이들이 오전 6시 40분에 등교하면 그는 아와서 못 온 학생은 없는지 집이 먼 학생들이 모두 왔는지 하나하나 체크한다. 그는 "대부분 부모와 떨어져 살고 있다. 아이들은 모두 가슴 아픈 사연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의 사무실에는 학생 부모의 전화번호와 수십 명 부모의 송금과 지출 명단이 붙어있다. 학부모 월 오씨는 "매년 한 두 번 고향에 간다. 4학년인 딸은 70대 노모와 살고 있는데 어머니가 돈을 관리할 수 없어 생활비를 숭 교장에게 보내고 있다"며 "숭 교장이 아이에게 필요한 물품을 사주고 매 학기 영세서를 보내준다. 어떻게 감사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교사 부족 문제는 숭 교장의 가장 큰 고민거리다. 현재 교사는 겨우 7명이다. 새로운 교사들이 파견돼 오지만 1년을 못 넘기고 가버린다. 그는 "젊은 교사들을 탓할 수 없다. 외지고 조건도 안 좋아서 마을 젊은이들도 모두 나가버렸다"며 안타까워했다.

숭 교장은 "어려서부터 많은 편견과 차별 속에서 살아왔다. 하지만 주변 사람들의 도움으로 극심한 열등감에서 벗어났다"며 "역경을 만났을 때 누군가의 도움이 절실하다. 선생님의 본분은 잘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기르는 것"이라며 교육에 대한 열정과 아이들에 대한 사랑을 드러냈다.

/정리=조선미기자

삼성-CJ 화해모드 돌입하나

이재용 부회장 등 삼성家, 이재현 회장 선처 탄원서

그동안 상속 소송으로 갈등을 빚었던 삼성과 CJ간 화해 모드가 조성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1600억원대 횡령·배임·탈세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형을 선고받고 다음달 4일 항소심 선고를 앞둔 이재현 CJ 회장에 대해 범 삼성가 구성원들이 탄원서를 제출했다.

탄원서 제출자 명단에는 이건희 회장의 부인인 홍라희 리움미술관장,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이명희 신세계 회장, 이인희 한솔그룹 고문, 이건희 회장의 둘째형인 고 이창희씨의 부인 이영자씨 등이 포함됐다.

탄원서에는 이재현 회장이 현 상태로 수감 생활을 견딜 수 없어 선처해달라는 내용과 CJ그룹의 경영차질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그룹 관계자는 "집안의 문제여서 회사에서는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으나 가족간 정리를 생각해서 (이재현 회장의)선처를 탄원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CJ그룹 관계자는 "이재현 회장의 건강도 좋지 않고 경영도 차질이 빚어지니 가족의 일원으로 안타까운 마음과 대승적 차원에서 탄원서를 제출한 것 같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가족간 화해하는 분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범 삼성가 구성원들이 탄원서를 제출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재계에서는 삼성과 CJ간 화해가 이뤄지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제기된다.

앞서 2012년 고 이병철 삼성 창업주가 남긴 상속재산을 두고 장남 이맹희씨 등이 삼남 이건희 회장을 상대로 천문학적 규모의 소송을 제기했다. 이로 인해 이건희 회장의 삼성그룹과 이맹희씨 측 CJ그룹은 소송 과정에서 공방을 벌였다.

1, 2심이 이 회장의 완승으로 끝나고 이맹희씨가 지난 2월 상고를 포기함에 따라 삼성가의 형제간 소송전은 어렵사리 마무리됐다.

당시 이건희 회장은 "가족 문제로 걱정을 끼쳐 죄송하고 가족간 화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송 대리인을 통해 밝혔다.

이맹희씨도 "소송보다 중요한 것은 가족간 관계"라고 전했다.

한편 이재현 회장은 총 6200여억원의 비자금을 차명으로 운용하면서 546억원의 조세를 포탈하고 963억원 상당의 국내외 법인 자산을 빼돌린 혐의로 지난해 7월 구속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비자금 조성과 세금 포탈 등 혐의를 유죄로 판단, 지난 2월 징역 4년의 실형과 벌금 260억원을 선고했다. 다만 이 회장의 건강상태를 고려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이후 이 회장 측은 구속집행 정지 연장을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유헌기자 ty0426@metroseoul.co.kr

경기 전망 어렵다

전경련 조사, BSI 93.1

국내 기업들은 9월 경기 전망도 부정적으로 보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전망을 수치로 나타내는 기업경기실사지수(BSI)가 4개월 연속 100이하로 떨어졌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매출액 기준 600대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BSI 조사결과, 9월 종합경기 전망치는 93.1로 4개월 연속 기준선 100을 하회했다. 이는 경기 회복세 부진, 소비심리 회복 지연, 유로존·일본 경제 불확실성 등의 요인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김용옥 전경련 경제정책팀장은 "새 경제팀의 경제정책방향 발표와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하에도 경기 회복세가 미약해 기업의 경기 전망은 아직까지 나아지지 못하고 있다"며 "속도감있는 규제개혁 추진과 경제활성화 법안의 조속한 처리로 경기회복과 내수활력 제고를 뒷받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문별로 ▲내수(98.5) ▲수출(96.0) ▲투자(97.9) ▲자금사정(96.3) ▲고용(99.4) 채산성(93.8) 등 모든 부문에서 부정적으로 전망됐다.

지난 8월의 BSI 실적치는 89.0으로 6개월만에 최저치를 기록한 바 있다. 부문별로 내수(89.2), 수출(91.3), 투자(98.1), 자금사정(96.5), 재고(106.9), 고용(99.4), 채산성(89.8) 등 모든 부문에서 부진했다. /김태균기자 ktk@metroseoul.co.kr

분주한 가락시장 청과물 경매장 추석을 앞두고 28일 오전 서울 송파구 가락농수산물도매시장 청과물 경매장에서 작업자들이 분주하게 과일상자를 옮기고 있다. /연합뉴스

기아차, 멕시코 공장 투자 계약 체결

중남미 공략 '시동'

기아차 멕시코 공장 건설

멕시코 누에보 레온주 몬테레이 인근 페스케리아

기아차 10억 달러(약 1조 400억원) 투자

공장 5.1㎢ 건설 내용 및 착공에 들어가 2016년 완공(연 30만대 생산)

멕시코 · 페스케리아 · 멕시코만 · 멕시코시티 · 태평양

KIA

/연합뉴스

기아차는 27일 오전(현지시간) 멕시코시티 연방전력위원회 기술박물관에서 이형근 기아차 부회장 등 회사 관계자와 엔리케 페냐 니에토 멕시코 대통령, 로드리고 메디나 데 라 크루즈 누에보 레온州 주지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멕시코 현지 공장 건설을 위한 투자계약 조인식을 가졌다.

현지공장은 누에보 레온州 몬테레이 인근 페스케리아 지역 500ha(151만평, 부품협력사 부지 포함) 부지에 10억 달러를 투자해 연산 30만대 규모로 건설된다. 올 9월 말 착공에 들어가 2016년부터 소형차를 생산할 예정이다.

멕시코 공장이 완공되면 기아차는 국내 169만대, 해외 168만대 총 337만대의 글로벌 생산 능력을 갖추게 된다.

기아차가 멕시코 공장 설립을 결정하게 된 것은 글로벌 생존 및 미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서 신규 시장 개척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특히 멕시코는 연간 판매수요가 100만대이고 향후 성장 가능성이 높은 국가이지만 20%에 달하는 고관세 때문에 기아차 판매가 없던 국가다. GM, 폭스바겐, 토요타, 닛산 등 대부분의 글로벌 메이커들도 현지생산 체제를 구축해 멕시코 시장을 공략하고 있다.

또한 멕시코는 저렴한 인건비, 높은 노동생산성,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중남미 포함 40여 개국과의 FTA 네트워크 등 입지 조건, 글로벌 시장 접근성이 뛰어나다.

특히 북미와 중남미 다수 국가들에 무관세 판매가 가능해 최근 공급 부족 문제를 겪고 있는 북미 시장 공급 안정화와 고관세로 판매가 감소하고 있는 중남미 시장 판매 확대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 완성차 수출 증가도 기대된다. 멕시코는 현지 생산량의 10%까지 무관세 수입 쿼터제를 실시하고 있다. 이를 통해 최대 3만대까지 관세 없이 수출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또 기아차는 멕시코 공장을 기반으로 멕시코와 중남미 현지 판매망, A/S망을 더욱 탄탄하게 정비하고 브랜드 인지도를 높여 국내에서 생산하는 중대형 고급차까지 수출을 확대한다는 전략이다.

/정혜례기자 ferrari@

market index <28일>

코스피	코스닥
2075.71 (+0.83)	570.24 (+3.01)

금리	환율
2.53 (변동 없음)	1014.30 (+0.30)

현대카드, 우리집 김밥 오픈 현대카드가 소상공인의 꿈을 이뤄주기 위해 김밥을 연구하고 나섰다. 28일 현대카드는 현대캐피탈, 현대카드 미소금융재단과 드림실현 프로젝트 '우리집 김밥'을 오픈했다.

"최경환號 잘하고 있다"

공인중개사 69% 긍정 평가

전국 공인중개사 10명 중 7명은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끄는 2기 경제팀의 정책 행보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써브가 전국 회원 중개사무실 공인중개사 56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취임 이후 부동산 관련 정책 행보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는가'를 묻는 질문에 '매우 잘하고 있다'고 응답한 공인중개사는 28.0%(157명), '잘하고 있는 편이다'는 41.6%(233명)로 긍정적 평가가 69.6%(390명)에 달했다.

반면 '별로 잘하는 것 같지 않다'는 6.4%(36명), '매우 잘못하고 있다'는 2.7%(15명)로 부정적인 평가는 9.1%(51명)에 그쳤다. '보통이다'로 응답한 경우는 21.3%(119명)였다.

'2기 경제팀 출범 이후 한 달간 매매 관련 문의가 늘었는가'를 묻는 질문에는 41.8%(234명)가 '평상시와 비슷하다'고 응답했다. 그러나 '매도·매수 문의가 모두 늘었다'고 응답한 경우도 24.5%(137명)나 돼 부동산시장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이 일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김민수기자 kms@

metro 메트로신문사

서울시 종로구 평창문길(신문로2가)
TEL 02)721-9800, FAX 02)730-1551

발행·인쇄인	남궁호
사장·편집인	김종학
편집국장	조인호
광고문의	02)721-9851~3
독자센터	02)721-9891

2005년 5월 3일 등록/등록번호 서울특별시 가00086

애상치 못한 풀毒 치료 이렇게…

전순아 주부 경제팀

요즘 숲과 계곡을 찾아 캠핑을 즐기는 캠핑족이 늘고 있다. 캠핑은 반복되는 일상에서 벗어나 가족과 추억을 만드는 특별한 시간이 될 수 있지만, 자칫 예기치 못한 상황에 부닥칠 수 있다. 모기, 벌에 쏘이거나 풀독이 올라 낭패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우선 풀숲이나 풀이 있는 곳에서 야외활동을 할 경우 '풀독'을 조심해야 한다. 야외활동을 할 때는 최대한 피부 노출을 자제하고, 장갑과 모자를 착용하는 게 좋다. 풀독 증상으로는 빨간 반점이 일어나면서 가려움증을 유발하고, 염증으로 인해 붓기가 생긴다. 증상이 심해지면 따끔하고 후끈한 증상이 나타나 잠을 자기도 어려울 수 있다. 이런 증상을 치료하지 않고 방치하게 되면, 피부도 거칠어질 수 있다.

풀독이 올랐을 때에는 그 부위를 찬물이나 얼음 주머니 등으로 얼음 찜질을 하는 것이 좋다. 연고를 살짝 부위에 발라주고, 피부에 자극이 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또 가려움증으로 인해 부위를 긁게 되는데 손으로 긁게 되면 2차 세균 감염이 발생할 수 있어 꼭 유의해야 한다. 만약 시간이 지나도 풀독 증상이 호전되지 않는다면, 바로 피부과를 찾아 치료를 받는 것이 좋다.

벌집 역시 주의해야 한다. 벌은 주로 나무의 빈 구멍이나 바위 밑에 벌집을 짓고 살기 때문에 사람들 눈에 잘 띄지 않는다. 따라서 캠핑도구나 텐트를 치기 전에 긴 나무 막대로 주변에 벌집이 있는지 꼭 확인해야 한다.

벌집을 발견했을 때는 조용히 자리를 피하는 것이 좋다. 만약 벌떼의 공격을 받았을 때에는 벌집에서 떨어져 옷으로 머리를 보호하며 자세를 낮추는 것이 좋다. 독성이 없는 벌이나 약한 벌은 응급 처치만으로도 특별한 위험이 없다. 하지만 말벌처럼 큰 벌에 쏘이거나 많은 벌에게 공격을 당한다면 충격사를 당하는 경우가 있어 조심해야 한다.

벌에 쏘였을 때에는 신속하게 벌침을 제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호흡곤란 등 알러지 반응이 나타나면 즉시 119에 신고하거나 병원 응급실에 가야 한다.

국민銀 '기관경고' 중징계

전·현 임직원 68명 제재… 횡령·부당대출 감사 결과

금융감독원이 국민은행에 중징계에 해당하는 '기관경고' 조치를 내리고 전·현직 임직원 68명에게도 제재를 통보했다. KB금융의 주전산기 교체 논란에 대한 임영록 KB금융 회장, 이건호 국민은행장에 대한 제재는 보류됐다.

금감원은 28일 국민주택채권 횡령사건과 도쿄지점 부당대출 사건의 부문검사 결과에 따라 이처럼 조치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민은행은 향후 해외 점포진출이 쉽지 않게 됐으며 해외 채권 발행에서도 높은 자인금리를 부담하는 불이익을 받을 전망이다.

주전산기 교체건에 대해서는 징계 수위를 검토 중이므로 추후 확정 발표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했다.

금감원은 국민주택채권 횡령에 연루된 직원들에 대해 6명 면직 등 총 51명에게 제재를 가했다. 동경지점에 대한 본점의 부실한 관리업무로는 18명을 징계했다.

검사결과 국민주택채권 횡령사고와 관련해서는 2010년 3월부터 2013년 11월까지 본점 주택기금부 직원과 일부 영업점 직원이 공모해 위조채권을 이용해 1265차례 걸쳐 111억8600만원을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일례로 주택기금부 직원은 3년 8개월동안 실물채권 없이 국민주택채권 2451매를 111억8600만원에 현금 상환하는 수법으로 55억3600만원을 횡령했다.

경기도 일산 풍산동지점 4명은 이에 동조한 뒤 그 대가로 최고 1억2000만원의 금품을 수수하기도 했다. 또 서울 강북지점 직원 9명은 현금상환에 개입하면서 임의의 3자 명의를 동원했다.

국민은행은 5000억원대의 부당대출 사건이 발생한 도쿄지점의 관리도 소홀했다.

도쿄지점에서 금품수수, 차명송금, 꺾지기, 사적 금전대차 등 비위행위가 반복적으로 이뤄졌지만 지점의 내부통제와 경영실태 관리를 하지 않았다.

전직 상임 감사는 2012년 11월 자체감사에서 신용등급 임의 상향, 담보가치 과다평가 등으로 여신이 과다하게 발생하는 등 규정에 위반한 사례를 발견하고도 감사보고서에 누락하고 감사위원회에 보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검사결과 나타났다.

이건호 국민은행장에 대한 제재 내용은 감경됐다.

/김현정기자

신한銀, 전통시장 이용 캠페인 신한은행은 전국 26개 지역본부별로 각지역의 전통시장을 방문해 이용을 장려하는 '전통시장 이용 캠페인'을 진행했다. /신한은행 제공

증권사, 지점 4곳 중 1곳 문닫아

증권사들이 지난 2011년 유럽 재정위기 이후 장기간 이어진 증시 침체로 본부부서와 국내지점 등 조직을 18% 감축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국내지점은 4곳 중 1곳이 통폐합되며 없어졌다.

28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현재 증권사들의 본부부서, 국내지점, 해외지점 등 조직은 3275개로 최고치를 기록한 3년 전 3984개보다 17.8% 줄었다.

증권사 조직은 유럽 재정위기가 시작하기 직전인 2011년 6월 말 3984개로 가장 많았다가 2012년 6월 말 3877개로 줄어든 데 이어 지난해 6월 말 3522개, 지난해 말 3435개, 올해 3월 말 3333개로 계속 감소했다.

올해 6월 말 증권사 조직은 본부부서 1823개, 국내지점 1344개, 국내영업소 37개, 해외지점 2개, 해외사무소 20개, 해외현지법인 49개 등이다.

특히 국내지점은 2011년 6월 말 1828개에서 올해 6월 말 1344개로 26.5% 줄었고 해외사무소도 46개에서 20개로 절반 이하로 감소했다.

국내지점이 가장 많은 곳은 현대증권으로 109곳이고 뒤이어 한국투자증권 103곳, 대우증권 101곳, 신한금융투자 97곳, 동양증권 88곳, 우리투자증권 83곳 등이다.

또 미래에셋증권과 삼성증권이 각각 78곳, 대신증권과 하나대투증권 각각 77개, 한화투자증권 70개 등이다.

증권사들은 모바일 주식 거래가 늘어나면서 지점을 자산관리 자문을 위한 장소로 활용하기 위해 통·폐합하는 경우가 많았다.

은행 예대 금리 사상 최저

정기예금 연 2.4%대… 전월보다 0.01%↓

은행의 예금과 대출 금리가 모두 사상 최저치를 경신했다.

28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7월 중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에 따르면 지난달 예금은행의 신규취급액 기준 평균 저축성 수신금리는 전월보다 0.08%포인트 하락한 2.49%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대출금리는 연 4.39%로 전월보다 0.01%포인트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1996년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이래 사상 최저치로, 은행의 정기예금 평균 금리가 연 2.4%대로 떨어진 것은 처음이다.

저축성 수신금리는 지난해 12월 2.67%를 정점으로 떨어지기 시작해 지난 5월 2.59%, 6월 2.57% 등으로 하락세를 보였다.

이 가운데 대표적인 저축성 수신인 정기예금은 6월 2.55%에서 7월 2.47%로 하락했고 정기적금(2.77%→2.67%)과 상호부금(2.68%→2.58%) 등의 금리도 함께 떨어졌다.

비은행 금융기관의 금리 역시 상호저축은행을 제외하고는 모두 하락했다.

상호저축은행은 특판 상품 판매 등 영향으로 예금(1년만기 정기예금 기준) 금리가 전월보다 0.01%포인트 상승했다. 대출(일반대출 기준)금리도 비우량 가계에 대한 신용대출 비중이 늘면서 0.57%포인트 올랐다.

한편 월간 예대 금리차는 1년 만에 최대 수준으로 확대됐다.

지난 7월 중 은행 신규 취급분의 예대 금리차는 1.90%로 이는 저축성 수신금리보다 대출금리의 하락폭이 작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다만 은행의 예대마진을 보여주는 총수신금리와 총대출금리의 차이는 7월말 2.49%로 전월보다 0.01%포인트 줄었다.

이밖에도 대출금리 가운데 가계대출(3.94%→3.93%)이 주택담보대출(3.58%→3.53%)과 소액대출(5.29%→5.22%)을 중심으로 평균 0.01%포인트 떨어졌다.

현대·기아차, '콘셉트카' 개발로 미래 앞당긴다

화려한 모델과 번쩍이는 조명 사이로 미래형 차들이 자태를 뽐낸다. 많은 관람객들이 모델과 사진을 찍는 데 정신이 없다. 모터쇼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모습들이다.

이런 모터쇼의 화려함 때문에 그냥 지나칠 수 있는 중요한 볼거리가 바로 콘셉트카다. 콘셉트카는 크게 두 가지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 자동차 회사의 기술력을 뽐내는 것과 미래 자동차에 대한 소비자들의 반응을 미리 엿보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현대차와 기아차는 그동안 많은 투자를 통해 어떻게 중요한 의미를 지닌 콘셉트카를 개발하고, 양산차 개발에 응용했다. 특히 현대·기아차는 최근 세계 주요 모터쇼에서 다양한 콘셉트카들을 선보이고 있다. 이러한 콘셉트카들이 모터쇼에서 수차례 '모터쇼 최고의 콘셉트카'에 선정되어 남다른 디자인 역량을 과시하고 있다.

최근 현대·기아차가 선보이고 있는 콘셉트카는 디자인의 완성도와 함께 혁신적인 기술적 요소와 시대적 흐름인 친환경 기술을 담고 있어 더욱 주목을 받고 있다.

현대차의 콘셉트카 중 주목을 받은 콘셉트카로는 신형 제네시스의 디자인 기반이 된 HCD-14를 꼽을 수 있다. HCD-14는 현대차 미국디자인센터의 14번째 콘셉트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후륜 구동 플랫폼을 바탕으로 개발된 구체형 디자인에 실용성을 겸비한 4도어 패스트백 스타일의 스포츠세단이다.

HCD-14는 유연한 아름다움에 정교함을 더한 '플루이딕 스컬프처 2.0'의 시작을 알리는 동시에 프리미엄 차량의 디자인 방향성을 제시했다. 당시 현대차 미국판매법인 사장이었던 존 크라프칙은 인사말을 통해 "HCD-14는 프리미엄 시장을 겨냥한 현대차의 후륜 구동 프리미엄 스포츠세단에 대한 새로운 의지이며, 현대차가 앞으로 지향할 프리미엄 차량의 디자인 방향성을 보여주는 차가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HCD-14의 상하 일체형 대형 라디에이터 그릴 등을 비롯한 디자인 요소는 지난해 말에 출시된 신형 제네시스 양산차 디자인에 대거 반영됐다. 이것은 세계 각지에서 세련되면서도 역동적인 디자인이라고 호평을 받는 데에 밑거름이 됐다.

제네시스 쿠페 후속모델의 베이스로 유력한 콘셉트카 HND-9은 현대차 남양연구소에서 디자인한 아홉 번째 콘셉트카다. '플루이딕 스컬프처'를 한 단계 발전시켜 각 요소에 정교한 디테일을 가미, 고급스러움을 강조한 후륜구동 고성능 스포츠 쿠페로 디자인됐다.

HND-9은 롱 후드, 롱 휠베이스를 적용해 클래식하고 고급스러운 스포츠 쿠페의 우아한 이미지를 완벽하게 재해석해 표현했다. 또한 현대차 특유의 대형 헥사고날 그릴과 강렬한 캐릭터라인, 외부 렌즈가 없는 독특한 형태의 램프 등을 적용해 마력적인 감성을 담은 고성능 스포츠 쿠페의 이미지를 완성했다.

기아차에서는 2011년 9월 프랑크푸르트 모터쇼를 통해 공개한 대형 스포츠 쿠페 'Kia GT(KED-8)'가 양산 가능성에 근접한 차로 꼽힌다. 럭셔리 스포츠 세단이면서 장거리 여행에 적합한 고성능 자동차를 추구하는 '그랜드 투어링 카(Grand Touring Car)'다.

기아차는 Kia GT 외에도 기아차만의 역동적이고 창의적인 브랜드 정체성을 표현하기 위해서 '컵(CUB)', 'GT4 스팅어' 등 스포츠 감성을 가득 담은 콘셉트카를 지속적으로 선보이고 있다.

최근에는 신형 쏘울이 디자인을 반영한 기아차의 트랙스터, 신형 카니발 디자인에 반영된 KV7 등 디자인이 양산차에 다수 적용되고 있어 콘셉트카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김희대기자 ferrari@metroseoul.co.kr

수돗물 안심하고 마시자 28일 오전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건강 수 있는 수돗물 더욱 맛있게 마시자' 행사에서 모델들이 전국 7개 수돗물 브랜드들을 선보이고 있다. /뉴시스 제공

애플, '갤럭시 알파' 디자인 표절 주장

삼성 측 "2006년 출시 '카드폰'서 따온 것"

삼성 스마트폰 신작 '갤럭시 알파'가 애플의 아이폰5 디자인 표절 논란에 휘말렸다.

28일 미국 현지 외신에 따르면 갤럭시 알파가 아이폰5의 금속 디자인을 표절했다는 논란이 일파만파 퍼지고 있다. 특히 갤럭시 알파가 아이폰의 최대 특징인 챔퍼(미세하게 안쪽으로 비스듬히 깎인 모서리)를 적용한 점이 표절 논란의 중심이 됐다.

최근 삼성전자는 금속 프레임을 적용한 신제품 갤럭시 알파를 공개했다. 그동안 갤럭시 시리즈가 플라스틱을 택한 것과 다르게 갤럭시 알파는 금속 재질을 선호하는 북미 시장을 겨냥해 제작된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전자는 공식 블로그를 통해 "갤럭시 알파의 메탈 디자인은 아이폰이 최초 출시되기 1년 전인 2006년에 삼성이 출시한 '카드폰'에서 따온 것"이라며 "갤럭시 알파의 코너를 둥글게 만들고 메탈 소재를 적용한 것은 스타일과 그립감을 위한 것"이라며 아이폰5 디자인 표절 논란을 불식시켰다.

이어 '갤럭시 알파로 본 휴대폰 소재 히스토리' 기획 콘텐츠를 내놓으며 "갤럭시 알파는 삼성전자 휴대폰 중 처음으로 메탈을 적용한 모델은 아니다. 지난 2000년대 초반 피처폰 시절부터 삼성전자는 꾸준히 메탈 소재를 적용한 휴대폰을 출시해왔다"고 해명했다.

/정윤희기자 unique@

대구·부산, 하반기 분양 '후끈'

상반기 청약마감률 상위 5개 지역에서 하반기에도 신규분양 물량이 대거 쏟아진다. 상반기의 청약열기를 이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28일 금융결제원에 따르면 상반기 순위 내 마감률이 가장 높은 지역은 대구로 85.71%를 기록했다. 다음으로 부산이 77.78% 뒤를 이었고, 대전·경북·광주 순으로 상위 5위권 내 이름을 올렸다.

이들 대부분 지역 가운을 갖춘 신도시·혁신도시 등의 대단위 개발이 진행되면서 청약이 집중됐다는 공통점이 있다. 근로자들이 직장과 가까운 새 아파트를 찾는 과정에서 그동안 아껴뒀던 청약통장을 꺼내든 것이다.

이 같은 풍부한 배후수요를 바탕으로 이 지역들은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좋은 성적을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과잉 공급 여파로 최근 미분양 물량이 증가세로 돌아섰다는 점은 부담이다.

국토교통부에 의하면 7월 말 기준 대구지역 미분양 주택은 총 1754가구로 지난달(367가구)보다 1387가구나 늘었다. 같은 기간 ▲부산 2640→2822가구 ▲대전 531→590가구 ▲경북 720→1138가구 ▲광주 117→657가구 등 다른 곳에서도 미분양 물량이 증가했다.

업계 관계자는 "분양이 늘다 보니 자연스럽게 미분양도 증가한 것으로 아직 위험수준은 아니지만 부담이 되는 것은 사실"이라며 "상반기 분양이 잘 됐던 지역이라도 수요자들은 개발호재가 있는 대단지 브랜드 아파트 위주로 관심을 가져보는 게 좋다"고 말했다.

포스코건설은 오는 9월 경북 경산시 중산지구 C3블록에 '센타힐즈 더샵'을 선보일 예정이다. 전용면적 63~113㎡ 총 1696가구다. 중산지구는 7000여 가구의 아파트와 주거·상업·문화·레저기능이 복합된 콤팩트시티로 개발될 예정이다. 특히 '센타힐즈 더샵' 주변으로는 대형마트, 중산호수가 있어 편의성이 높다.

대림산업은 경북 구미 교리2지구에서 'e편한세상 구미 교리'를 9월 공급한다. 총 393가구 전용면적 59~84㎡로 구성됐다. 단지 북측으로 구미국가산업단지 5공단이 조성 중이다. 2018년까지 섬곡~구포간 왕복 4차선 자동차 전용도로가 완공되면 구미시청·국가산단1~5공단을 10분 내외로 이동할 수 있다.

/박선옥기자 pso@

삼성드림클래스, 청소년의 꿈을 이끈다

중학생 대상 학업성취 과정 교육기회 불평등 해소 모범 제시

"중학교 3학년이 된 후 학원을 끊고 혼자 해보시하는 마음이었지만, 막막했습니다. 삼성드림클래스에 참여해 혼자 공부를 잘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게 되고 동기부여가 될 수 있었습니다. 1학기가 끝나고 2학기만 남았는데 삼성드림클래스를 통해서 따로 사비를 들이지 않고 꾸준히 성적을 올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강에리 양

삼성그룹이 운영하는 드림클래스가 화제다. '개천에서 용난다'는 신화가 사라지는 상황에서 교육기회의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모범사례로 떠오르고 있기 때문이다.

드림클래스는 학습의지는 있지만 가정환경이 어려워 정규수업 이외에 교육지원 기회가 없는 중학생에게 방과 후 주요 교과목(영어·수학)에 대한 학습을 무상으로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삼성 드림클래스 여름캠프에 참가한 도서 산간지역 중학생들이 열정락서 드림클래스편에 참가한 후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삼성 제공

삼성 관계자는 "교육기회의 불평등 현상을 완화시켜 학업성취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배경을 만드는 것이 드림클래스의 목적"이라고 말했다.

이런 취지에 맞게 드림클래스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 중 155명이 올해 과학고 외국어고 국제고 등 특수목적고와 자율형사립고 마이스터고 등 우수 고등학교에 진학했다.

영재고와 과학고에 7명, 외국어고 국제고 30명, 자율고 56명, 마이스터고 62명이다.

이 프로그램은 지난 2011년 시범사업을 거쳐 2012년 3월부터 운영되고 있다. 대도시와 중소도시는 각각 주중과 주말에, 읍·면 도서지역은 방학을 이용해 캠프 형태로 운영된다.

주중 교실은 주 4회 총 8시간, 주말 교실은 토 일요일에 각 4시간씩 총 8시간에 걸쳐 학습이 이뤄진다.

방학캠프는 3주간 150시간에 걸쳐 집중 학습과 공연감상 등의 체험을 한다. 지난해 주중·주말 방학캠프에 전국 1000여개 중학교에서 1만4000여명의 학생이 참여했다.

올해에는 지난 7월25일~8월14일 3주간 전국 읍·면 도서지역에 거주하는 중학생 3000명을 대상으로 고려대·연세대·충남대·전남대·부산대 등 10개 대학교에서 개최됐다.

삼성 관계자는 "여름캠프에 참가한 중학생들은 영어 수학 실력이 향상된 것은 물론, 집으로 돌아가서도 스스로 공부하는 자기주도학습 능력을 갖게 됐다"며 "특히 교육시설의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전방부대에서 근무하고 있는 군 부사관 자녀 240여명도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고, 다양한 문화체험 활동을 통해 감성도 키워 다시 부모의 품으로 돌아갔다"고 밝혔다.

/송태강기자 kang@metroseoul.co.kr

좁아진 취업문, 역량 어필해야

잡코리아·인크루트 하반기 채용 동향 조사

하반기 취업시장이 더욱 좁아질 전망이다.

열린채용 대신 역량중심의 채용이 늘어나고 있어 구직자들의 대비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대기업 38% "채용계획 없다"

취업포털 잡코리아는 대기업 245곳의 올 하반기 채용 규모를 조사한 결과 지난해보다 7.1%포인트 감소한 1만5131명으로 집계됐다고 28일 밝혔다.

조사대상 기업 중 37.6%(92개사)는 올 하반기 신규 채용 자체가 아예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직까지 채용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기업도 17.6%(43개사)에 달했다.

반면 한 회사 당 평균 채용규모는 지난해(105명)에 비해 다소 늘어난 138명으로 나타났다. 기업 간 채용규모의 차이가 큰 것으로 보인다.

채용 규모가 가장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분야는 3180명을 뽑는 자동차·운수업이다. 전기·전자업(2407명), 유통·무역업(1855명), 금융업(1790명), IT·정보통신업(1610명), 제조업(1460명), 건설업(975명), 석유·화학업(659명), 조선·중공업(430명), 기계·철강업(410명), 식음료·외식업(405명) 등이 뒤를 이었다.

◆열린채용 인기 시들

취업포털 인크루트가 825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도 38.9%만 채용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이는 지난해보다 1.2%포인트 감소한 수치다.

반면 '채용계획이 없다'는 기업은 지난해보다 2.3%포인트 증가한 42.8%에 달했다.

'채용계획이 있다'는 대답은 대기업이 53.3%로 가장 많았다. 중견기업(42.9%), 중소기업(34.0%) 순을 나타냈다. 올 하반기에도 대기업 중심의 대졸신입채용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인크루트는 설명했다.

업종별로 차이도 컸다. 식음료업은 60%가 채용계획이 있다고 답한 반면 정보통신 분야는 31.3%에 불과했다.

한편 열린채용의 열기는 다소 주춤거리는 반면 역량중심의 채용이 늘어나는 것으로 보인다.

열린채용을 실시하거나 검토 중이라는 기업은 지난해보다 15.5%포인트나 줄어든 49.4%에 불과했다. 반면 스펙 대신 역량 중심의 채용을 하는 기업은 84.6%에 달했다.

이광석 인크루트 대표는 "스펙을 보지 않고 직원을 채용하는 열린채용에 대해 부담을 가진 기업이 늘어나면서 직무역량 중심의 채용에 관심을 갖는 기업이 늘어나고 있다"며 "자신의 직무 강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역량을 어필할 수 있는 기업과 지원분야에 입사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이국명기자 kmlee@

롯데마트, '통큰 공심정 선물세트' 23일 서울 중구 봉래동 롯데마트 서울역점에서 모델들이 PB 건강식품세트를 선보이고 있다. /롯데마트 제공

한전, 고농도 온실가스 무방비 배출

전정희 의원, "전기요금 인상 요인될 수 있어"

한국전력이 전력설비의 절연가스로 사용하는 고농도 온실가스의 일부가 무방비로 배출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28일 한전이 전정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전력설비에 쓰이는 육불화황은 총 5332t으로 작년에만 46t이 배출됐다.

불소 화합물의 일종인 육불화황은 주로 송배전 변압기와 전기 개폐기의 절연가스로 사용된다. 이산화탄소보다 온실지수가 2만3900배 높은 점을 고려하면 46t의 육불화황 배출은 111만t의 이산화탄소 배출 효과가 있는 셈이다.

전 의원은 "한전이 국내 소비량의 80%를 사용하는 육불화황은 자연적으로 분해되는데 2000년 이상 걸리는 반영구적 온실가스로 온실효과를 높이는 주범이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탄소배출권 거래제가 시행되면 한전은 육불화황 배출로 72억~150억원의 비용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된다"며 "이는 전기요금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는데 한전은 육불화황 소비를 줄일 수 있는 기술 개발이나 투자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전 관계자는 "육불화황 일부가 기기 고장이나 작업 과정에서 배출되고 있지만 회수 기술을 이용해 97%를 재활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고장 등으로 인한 배출을 줄이기 위해 정제기술을 개발하고, 완전 분해할 수 있는 신기술 도입도 검토 중"이라며 "육불화황을 쓰지 않는 기기를 일부 도입해 교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유주영기자 boa@

"방송·인터넷·스마트 서비스를 한번에!"

'현대HCN 스마트 셋톱박스' 출시… 미러링·올쉐어 등 눈길

"'현대HCN 스마트'의 셋톱박스는 리얼 스마트 구현을 통한 사용자 편리성에 초점을 맞췄다."

강대관 현대HCN 대표는 28일 서초동 현대HCN 사옥에서 미디어 데이를 열고 "'혁신'과 '새로움'은 현대HCN 스마트 케이블을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최적의 단어"라며 이 같이 밝혔다.

현대HCN이 이날 선보인 스마트 셋톱박스는 기존 유료방송 셋톱박스와 달리 일반 방송뿐 아니라 스마트 기능, 모뎀, 와이파이(WiFi) 등을 모두 결합해 제공하는 올인원 디바이스다.

현대HCN 스마트 셋톱박스 시청자들은 TV주변을 어지럽히는 여러 대의 디바이스와 기기 간 조정을 맞춰 사용자환경(UI)과 사용자경험(UX)의 개선효과를 볼 수 있다. 고객이 채널과 주문형비디오(VOD)를 탐색할 때 불필요하게 시선을 움직이지 않도록 중앙에 포커스를 두고 정보가 움직이는 방식을 택했으나 또 PIP(Picture In Picture)시스템을 차용해 모든 채널을 영상으로 검색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고객이 현재 채널 시청중에도 스크린 하단에서 다른 채널의 영상을 직접 확인한 후 채널을 전환할 수 있게 됐다.

TV 리모컨의 음성인식 기능도 대폭 개선됐다. 음성인식률이 90% 이상에 달할 만큼 스마트해진 것이다. 셋톱박스 전원 ON-OFF, 채널 전환, VOD 검색 등 방송시청을 위한 대부분 필수 기능들이 오류가 거의 없이 음성만으로 조작이 가능하게 한다. 이는 다소 복잡한 리모컨 터치를 최소화 할 수 있어 이용자 편의성 증진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빅데이터를 활용한 추천 서비스 역시 시청자의 편리성을 더해 준다. 시청자가 주로 시청하는 채널과 TV프로그램, VOD 등 고객별 사용패턴에 따라 요일별, 시간대별 추천서비스가 제공된다. 이용 기간이 길어질수록 축적된 고객들의 빅데이터를 바탕으로 점점 더 정확하고 편리한 추천서비스를 확인할 수 있다.

가장 눈에 띄는 기능 중 하나는 퀵부팅 서비스다. 셋톱박스의 전원을 껐다 켤 경우 1분40여 초의 부팅 시간이 걸린다. 하지만 이 같은 소요시간을 최대한 단축시키기 위해 현대HCN은 셋톱박스가 켜진 뒤 20여초 뒤 지상파, 홈쇼핑 등 15개 채널은 미리 시청할 수 있도록 했다.

현대HCN 스마트는 세컨드TV 스크린과 미러링 기능도 있어 스마트폰이나 태블릿PC의 기능을 TV의 큰 화면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현대HCN 스마트 가입 시 '현대HCN 동글'이 스틱형태로 함께 제공돼 동글만 셋톱박스에 연결하면 앱, 게임 등 모바일과 태블릿PC에 있는 모든 기능과 콘텐츠를 TV에서 즐길 수 있다.

이밖에 올쉐어 기능도 제공해 휴대전화에 저장돼 있는 사진과 영상을 TV 화면으로 시청할 수도 있다.

강 대표는 "현대HCN은 고객의 시청습관과 편리성에 초점을 맞춰 이제까지와 다른 새로운 스마트 디바이스를 출시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급변하는 방송환경에서 시청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준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대HCN 스마트 서비스는 다음달 1일부터 시작하며 이용 요금은 기존 요금보다 약 20% 높아질 전망이다. 현대HCN 아날로그·디지털케이블 가입자 누구나 이용 가능하다.

/이재영기자 ljy0403@metroseoul.co.kr

권기정 현대HCN 기술총괄실장 상무가 28일 서초동 현대HCN 사옥에서 미디어데이에서 셋톱박스 하나로 방송·콘텐츠·스마트 서비스를 한번에 구현하는 '현대HCN 스마트'를 소개하고 있다. /사진=손진영 기자 son@

"에뛰드하우스 이벤트 참여하고 선물 받으세요" 에뛰드하우스가 28~29일 에뛰드하우스 홍대점과 명동점에서 '플어 워터 바오밥' 소비자 체험 이벤트를 열고 있다. 누구나 주사위 던지기 등 게임을 통해 '플어 워터 바오밥 스킨', '플어 워터 바오밥 모이스처라이저' 등 경품을 받을 수 있다. /에뛰드하우스 제공

LG유플러스 영업정지 첫날, 통신시장 '잠잠'

번호이동 1만3000건… 추석 전후 신제품 출시·연휴 마케팅 변수로

LG유플러스가 영업정지 첫날 번호이동 1만3000건을 기록했다.

추가 영업정지로 인한 업계 분위기가 당초 우려에 비해 과열되지 않은 것이다. 하지만 추석 전후로 진행되는 신제품 출시와 연휴 마케팅이 변수가 될 전망이다.

28일 이동통신업계에 따르면 LG유플러스는 영업정지 첫날인 지난 27일 전체 번호이동건수(알뜰폰 제외) 1만3089건을 보였다. 이는 정상 영업 기간이었던 7~8월 하루 평균치 1만6000건보다도 적은 수준이다.

이동사별 번호이동건수를 보면 SK텔레콤이 KT와 LG유플러스에서 각각 517명과 3391명을 끌어와 가입자가 3908명 순증했다. KT의 경우 SK텔레콤에 517명을 빼앗겼지만 LG유플러스에서 1617명을 데려와 결과적으로 1100명 순증했다.

추가 영업정지로 신규 및 번호이동 가입자 모집이 금지된 LG유플러스는 SK텔레콤과 KT 양쪽에 가입자를 빼앗기며 총 5008명 순감했다.

예상보다 시장 분위기가 차분하지만 다음달 신제품 출시가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삼성전자 '갤럭시 노트4'와 애플 '아이폰6'가 각각 출시를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 신제품에 대한 기대감 상승과 기존 제품 재고 정리 등으로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 추가 영업정지는 마케팅 분수령이 될 수 있다.

앞서 방송통신위원회는 보조금 과다 경쟁 주도를 문제삼아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에 일주일씩 추가 영업정지 제재를 내렸다. LG유플러스는 27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SK텔레콤은 다음달 11일부터 17일까지 신규 가입자 모집이 금지된다. 다만 영업정지 기간에도 기기변경은 허용된다. /정윤희기자 yuni@

가입비 인하, 체감효과는 '미미'

이동통신 3사가 일제히 가입비를 50% 인하하는 등 가계통신비 경감 방안을 내놨지만 소비자 체감효과는 미미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8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이통 3사는 30일부터 가입비를 일제히 50% 인하한다. 이는 미래창조과학부가 지난 6월 발표한 '2014년 가계통신비 경감 방안'에 따른 것이다. 미래부는 내년 말까지 가입비를 전면 폐지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이 같은 가입비는 신규 가입자에 한정된 것이다. 이미 이동사에 가입된 기존 고객은 휴대전화를 바꾸지 않는 이상 혜택을 받을 길이 없다.

특히 최근 이동사 간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보조금 마케팅에 가입비마저 포함, 신규 가입자에게 가입비를 전액 무료로 해주는 모습도 빈번하게 볼 수 있다.

실제로 대부분의 이동사 대리점·판매점에서 '가입비 무료', '유심(USIM)비 무료' 등의 문구를 흔히 접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이통 3사의 가입비 50% 인하 발표가 가계통신비 인하에 얼마나 영향을 끼칠지 모르겠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통 3사는 취약계층 요금제를 대상으로 데이터 기본 제공량을 늘리고, 전용 요금제도 출시하면서 선택권도 넓혔다.

이동사 관계자는 "가입비 50% 인하 등 통신요금 인하와 취약계층의 정보 격차 해소에 이번 이통 3사의 대안이 일조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고객만족과 통신산업의 발전을 위해 지속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영기자 ljy0403@

티브로드 가입 옥션포인트 24만원 지급

케이블TV 방송사 티브로드가 옥션과 제휴해 티브로드 신규 가입자에게 최대 24만원의 옥션포인트를 지급한다.

이번 프로모션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초고속인터넷, HD디지털방송, 인터넷 전화를 단독 혹은 결합으로 다음달 16일까지 신규 가입 접수 및 개통 완료하면 된다.

최대 100Mbps의 초고속인터넷만 단독 가입하더라도 옥션포인트 14만원이 지급된다. 초고속인터넷과 HD디지털방송 결합상품 가입시 옥션포인트 22만원, 초고속인터넷, HD디지털방송, 인터넷전화 3가지 모두 결합 가입시 옥션포인트 최대 24만원을 받을 수 있다.

3년 약정 기준 초고속인터넷은 월 2만3100원, 인터넷+방송은 월 2만7000원, 인터넷+방송+인터넷전화는 월 3만900원에 이용 가능하다.

모든 혜택은 신규 가입자에 한해 적용된다. 이번 프로모션으로 신규 가입하는 고객은 설치비 면제와 함께 연말까지 사용 가능한 옥션 10% 할인 쿠폰도 받을 수 있다. /이재영기자

게임으로 장애우를 힘껏 포용하다

국내 메이저 게임사들이 장애우들을 힘껏 포용하고 있다.

장애학생이 참여하는 대규모 e스포츠대회를 여는가하면 이들의 소통을 돕는 소프트웨어를 무료로 배포하고 있다.

넷마블은 9월2~3일 서울 양재동 더케이서울호텔에서 '제 10회 전국장애학생 e스포츠대회'를 개최한다.

넷마블이 6년째 후원하는 이 대회는 장애학생의 건강한 여가생활 개발과 장애인식 개선, 정보격차 해소를 목적으로 한다.

전국의 장애학생, 교사, 학부모, 일반 학생 등 1500여명이 참여해 함께 소통하는 축제의 장으로 자리잡았다.

넷마블 임직원들도 대회 정식 종목인 '마구마구', '차구차구', '다함께붐붐붐' 등의 심사위원으로 참여하는 방식으로 재능 기부를 한다.

CJ엔투스 프로게임단 선수들도 참여해 팬사인회를 여는 등 다채로운 부대행사가 함께 진행된다.

전북푸른학교 김민 학생은 "e스포츠대회는 장애로 위축되고 사람들을 기피했던 성격에서 벗어나 다른 참가자들과 자연스럽게 어울리며 세상으로 한 발짝 내딛는 기회를 만들어줬다"고 말했다.

지난해 전국장애학생 e스포츠대회에 참가한 장애우들이 포즈를 취했다. /넷마블 제공

넷마블 전국 장애학생 e스포츠대회
엔씨문화재단 의사소통 SW 무료 배포

엔씨소프트문화재단은 말하기, 쓰기 등 의사소통에 장애를 지닌 사람들을 지원하는 공익 소프트웨어를 최근 강원도 일대에서 진행된 스페셜올림픽 하계대회에서 무료 배포했다.

'My First AAC'로 불리는 이 프로그램은 대화할 때 어려움을 겪는 장애 아동과 가정을 위해 스마트폰과 태블릿PC 등 스마트 기기 기반에서 의사소통을 돕는다.

말을 배우기 시작하는 언어 연령 2~5세의 장애 아동이 대상이다.

감정, 활동, 음식, 색, 사회성 등 총 23개 카테고리에 300개 이상의 아이콘으로 구성됐다. 제작 과정에 언어, 아동, 교육 등의 전문가가 참여했고 학부모, 교사 등을 상대로 사용성 평가도 끝냈다.

엔씨재단은 스페셜올림픽 하계대회에서 아이패드로 프로그램을 시현할 수 있는 전시 공간도 운영해 박수를 받았다.

보완대체 의사소통 프로그램은 미국과 유럽 등 선진국에서는 자신의 의견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는 뇌성마비, 자폐성 발달장애, 정신지체뿐 아니라 중복감각장애나 청각장애, 말운동장애, 지체장애 등에 보편화된 상태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이용은커녕 개념조차 생소한 실정이다. 특히 언어 습득과 학습에 기본이 되는 시기인 2~5세 장애 아동을 주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은 사실상 전무하다.

윤송이 엔씨소프트문화재단 이사장은 "의사소통은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이자 가족 간 유대에 있어 중요한 부분이다. 의사소통지원 SW가 장애 아동 가정이 가족과 사회와 소통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권정현 라이엇게임즈 e스포츠커뮤니케이션 본부 총괄 상무는 "플레이어들의 관심과 사랑에 힘입어 오늘날 e스포츠는 또 하나의 문화이자 스포츠로까지 성장하고 있다"며 "다가오는 가을 펼쳐질 세계 최고 권위의 LoL e스포츠 대회, 롤드컵이 많은 분들께 잊을 수 없는 경험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박성훈기자 zen@metroseoul.co.kr

'소오강호 온라인' 오픈

퍼펙트월드 코리아는 28일 대작 MMORPG '소오강호 온라인'의 공개서비스를 시작했다.

오후 5시부터 실시하는 '소오강호 : Ep 1 동방불패의 귀환'의 공개서비스는 원작 소설에 등장하는 짜임새 있는 스토리를 배경으로 진행되는 퀘스트와 유저끼리의 실력을 겨루는 비무대회 등 다양한 콘텐츠를 선보인다.

유저들은 10대 문파 중 자신의 성향에 맞는 캐릭터를 선택해 각자의 스타일대로 스킬을 조합해 사용할 수 있는 스킬 커스터마이징 시스템으로 강렬한 타격감과 색다른 손맛을 즐길 수 있다.

또 원작 소설 '소오강호'의 스토리로 진행되는 퀘스트 중간에 등장하는 시네마틱 영상과 원어(중국어) 더빙으로 유저들은 게임을 즐기며 영화를 감상하는 듯한 두 가지 재미를 한번에 느낄 수 있다.

공개서비스 일정 공개부터 다양한 방식으로 열리는 '소오강호 선전포고(4Go!)' 이벤트 중 공개서비스와 함께 진행되는 세번째 '3Go!' 이벤트는 게임을 플레이하는 유저 중 추첨으로 100만원권 기프트 카드와 최신형 노트북, 그래픽 카드 등 다양한 경품을 지급한다. /박성훈기자

'롤 월드 챔피언십' 본선 티켓 2만5000원부터

세계적인 온라인 게임 '리그 오브 레전드(이하 롤)'의 개발·유통사인 라이엇 게임즈가 '2014시즌 롤 월드 챔피언십(이하 월드 챔피언십)'의 본선 토너먼트 티켓 판매를 28일부터 개시한다.

부산 벡스코에서 10월3~6일에 8강전 티켓은 골드석 1만8000원, 실버석 1만2000원이다. 10월11일, 12일 서울 올림픽체조경기장에서 진행되는 4강전은 플래티넘석 4만원, 골드석2만5000원, 실버석 1만5000원이다.

10월19일 상암 서울월드컵경기장(사진)에 치러지는 결승전은 다이아몬드석 5만5000원, 플래티넘석 5만원, 골드석 4만원, 그리고 실버석은 2만5000원이다.

중고생은 모든 좌석에 20% 할인 혜택이 주어진다. 본선 토너먼트 티켓은 28일 오후 3시부터 인터파크(http://ticket.interpark.com)에서 예매할 수 있다.

한편 이번 월드 챔피언십 현장에는 플레이어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이벤트도 진행된다.

먼저 8강과 4강전에는 유명 코스튬플레이어인 스파이럴 캣츠와의 포토존이 설치될 예정이다.

결승전에는 코스튬플레이 콘테스트, 벤이는 곤가회, 팬아트 삭기 사인회 등 다양한 즐길거리가 준비돼 있다.

그 외에도 월드 챔피언십 현장에 온 사람만 경험할 수 있는 '월드 챔피언십'을 스토어에서 '월샘 트릭 재킷'을 비롯, 다양한 상품들을 볼 수 있다. /박성훈기자

아직도 살아있네~ 살아있어!
팡야·카트·스포 등 10주년 게임 인기 여전

강산이 변한다는 10년이나 됐지만 여전한 인기를 누리고 있는 온라인 게임들이 화제다.

엔트리브소프트가 서비스하는 캐주얼 골프 대전 게임 '팡야'는 28일 서비스 10주년을 맞이해 대규모 업데이트 '내추럴 윈드(Natural Wind)'를 실시했다.

게임 엔진 업그레이드를 통해 그래픽을 향상시켜 새로운 '팡야'로 재탄생했다는 설명이다. 특히 하나, 누리 등 캐릭터의 모습도 새롭게 단장하고 플레이 어시스트 시스템, 신규 게임 모드, 육성 시스템 등에도 변화를 줬다. 기존 10년과는 다른 색다른 게임성을 맛볼 수 있다고 엔트리브소프트는 설명했다.

이보다 앞선 18일 넥슨의 '크레이지레이싱 카트라이더'도 10번째 생일을 맞았다. 2004년 국산게임으론 처음으로 PC방에서 '스타크래프트'를 밀어내고 점유율 1위 게임에 오른 '카트라이더'는 '국민게임'이라는 신조어를 만들어내기도 했다. 지난 16일에는 서울 서초구의 넥슨 아레나에서 카트라이더 리그 해설위원으로 활동 중인 김대겸과 현역시절 '고와 쌈박을 이룬 조현준 등 추억의 스타와 함께하는 이벤트 매치를 통해 재도약을 다짐했다.

네오위즈게임즈의 FPS 게임 '스페셜포스'는 오는 30일 이용자 100여 명을 초대해 10주년을 축하할 예정이다. 이번 행사는 개인과 단체전 게임을 치르는 이벤트와 축하 공연팀의 이벤트쇼 등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국명기자 kmlee@

DRAMAcube
LEROY'S
MOTOR INN
VACANCY
WELCOME
LOWER RATES
미스터리 잔혹 스릴러
파고
FARGO
매주 토요일 밤 12시
[셜록] 마틴 프리먼 주연
tcast

맥도날드 9월 한달간 200만 명에게 경품 제공 맥도날드가 9월 1일부터 한달간 총 200만 명에게 현금 1억원을 비롯해 폭스바겐 자동차, 유럽과 호주 여행권, 다양한 가전과 전자기기, 맥도날드 제품까지 증정하는 경품 이벤트 '모노폴리 프로모션'을 연다. /맥도날드 제공

'추억의 먹거리' 전성시대

인절미·왕돈카스·누룽지·집반찬 등 '7080 제품' 다시 인기

무한 속도 경쟁에도 불구하고 식품 업계에서 70~80년대 인기를 모았던 기존 제품들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고 유년기의 추억과 아날로그적 감성을 담은 제품들을 잇따라 선보이면서 소비자들로부터 주목을 받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최근 두드러지고 있는 이런 현상은 소비심리에도 영향을 주고 과거의 행복한 경험이 더해진 제품을 구매하려는 경향도 덩달아 늘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먼저 해태제과는 최근 고소하고 쫄깃한 인절미떡을 과자로 재해석한 '구운 인절미'를 선보였다. 이 제품은 100% 국내산 쌀로 만들었으며 따뜻한 아랫목에서 할아버지가 들려주는 옛날 이야기를 들으며 먹던 인절미의 맛과 추억을 그대로 간직한 복고풍 스낵이다. 딱지 않고 입에서 사르르 녹아 인절미 특유의 맛과 구수한 향을 진하게 살린 것이 특징이다.

(왼쪽부터 순서대로) 해태제과의 구운 인절미, 동가진의 우리쌀 누룽지, 샘표의 우리엄마 재깟한 찻잎

과거 돈카스는 70년대만 해도 집안에 특별한 행사가 있을 때만 동네에 한 곳뿐이던 경양식당을 찾아 맛볼 수 있었던 특별 고급 요리였다.

아워홈은 이런 옛날 경양식집에서 먹던 추억의 왕돈카스를 그리워하는 소비자들의 추억을 타깃으로 두 명이 먹어도 충분한 지름 20㎝의 '대왕돈카스'를 출시했다. 제품은 한국식 고급 수제 돈카스와 간편하게 데워 부어먹을 수 있는 데미그라스 소스를 함께 동기해 입맛에 맞춰 다양하게 즐길 수 있다.

대상 FNF는 먹을거리가 많지 않던 시절 식감이 좋고 뒷맛이 고소해 즐겨먹던 추억의 간식거리인 누룽지를 재해석한 '우리쌀 누룽지'를 지난달 내놨다. 100% 국내산 쌀로 만들었으며 고소하고 담백한 누룽지의 맛을 최대한 살려 가난하지만 따뜻했던 추억을 느끼고 싶은 중 장년층들에게 인기를 모으고 있다.

샘표는 엄마의 따뜻한 사랑을 콘셉트로 한 '우리엄마 반찬 시리즈'를 선보이며 통조림 시장에서 인기몰이를 하고 있다. 고향을 떠나 객지에서 생활하는 아들 딸에게 손수 반찬을 싸주시던 엄마의 정성과 추억의 맛을 듬뿍 담아 가정식 반찬으로 편리성을 높였다. 이 반찬 시리즈는 출시 이후 대형마트를 중심으로 매출이 34% 성장하며 소비자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윤정원 기자 ...@metroseoul.co.kr

정성 담은 DIY 선물 잘나간다

한과·선물포장·장신구 만들기 등

민족 최대의 명절 한가위를 앞두고 선물 준비가 한창인 가운데 오픈마켓에서는 정성을 담을 수 있는 DIY 추석선물이 인기다.

옥션에 따르면 추석을 앞둔 최근 일주일 동안(8월 19일~8월 26일) DIY 소품 판매가 전년 동기보다 60% 증가했다. 특히 제과·제빵 식재료 판매는 30%나 늘었다. 38년 만에 가장 이른 추석과 마무리 휴가 시즌이 겹치면서 비용은 줄이되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선물을 찾는 소비자들이 늘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직접 만드는 선물은 적은 비용으로 정성을 담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옥션에서 선보이고 있는 'DIY 상투과자 만들기 세트', '블럭큐브 양갱 만들기 세트', '오곡강정 만들기 세트' 등은 어른들의 추천 부리 선물로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또 아이들과 함께 만들 수 있어 체험교육용으로 유용하다는 점도 인기 요인이다. 과자 만들기에 필요한 모든 재료는 세트 안에 들어있으며 첨부된 요리방법을 참고하면 초보자도 어렵지 않게 만들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추석 선물용 복주머니, 선물봉투 등을 만들 수 있는 '원트 체크' DIY상품도 같은 기간 25% 판매가 증가했다. '복주머니 DIY'는 패턴 본트지의 절선을 따라 깔끔하게 재단을 하고 간단한 바느질을 하면 한복에 잘 어울리는 디자인의 복주머니를 만들 수 있다. 손잡이가 달린 와인 포장을 만드는 '도련님·애기씨 와인커버' 등 기초 바느질만 할 수 있으면 손쉽게 완성할 수 있는 제품들도 인기다.

이 외에도 한복 장신구를 만들 수 있는 '노리개 만들기', '배씨머리띠 만들기' 등은 아이들을 위한 추석선물 DIY 제품으로 눈길을 끈다.

김은영 옥션 완구·선물 카테고리 매니저는 "추석맞이 주전부리 과자나 선물포장 등 DIY 제품은 최대 2만원대로 가격 부담은 적지만 만드는 동안 정성이 들어가기 때문에 뜻깊은 선물로 주목 받고 있다"고 말했다. /김학철 기자

'환골탈태' 라면 요리법 가이드

국내 대표 만화영화 '아기공룡 둘리'에 등장하는 '라면송'을 떠올려보면 한국인의 라면 사랑은 그야말로 특별하다고 할 수 있다. '라면의 달인'도 부럽지 않은 색다른 라면 조리법 3가지를 소개한다. 자료 제공: 메뉴판닷컴(www.menupan.com)

◆라면 제소 스파게티

분량 2인분 / 난이도. 보통 / 열량 390㎉ / 조리시간 20분

[재료] 라면 1개, 다진쇠고기 사태 30g, 셀러리 1대, 양파·토마토 각 1/4개, 양송이버섯 1개, 피망·물 각 1/2컵

[양념] 토마토케첩 2큰술, 버터 1/2큰술, 소금·후춧가루 각 약간

1. 라면은 끓는 물에 삶아 물기를 뺀다.
2. 셀러리 양파를 곱게 다지고 토마토는 껍질을 벗겨 곱게 다진다.
3. 양송이버섯은 0.2㎝ 두께로 썰고 피망은 가로·세로 각각 0.5㎝ 크기로 썬다.
4. 프라이팬에 버터를 넣고 셀러리 양파를 볶다가 다진 쇠고기를 넣어 볶는다.
5. 토마토와 토마토케첩을 넣어 볶은 뒤 물을 부어 끓인다.
6. 양송이버섯과 피망을 넣고 소금·후춧가루로 간을 맞춘다.
7. 그릇에 라면을 담고 위에 ⑥의 소스를 끼얹어 낸다.

◆라면 샤부 샤부

분량 4인분 / 난이도. 보통 / 열량 230㎉ / 조리시간 30분

[재료] 라면 2봉, 쇠고기 200g, 표고버섯·배추 각 100g, 대파 2뿌리, 당근 1/3개, 다시마 3조각

[참깨소스] 사과즙·간장 각 3큰술, 깨소금·다진파 각 2큰술, 다진마늘·설탕·참기름 각 1큰술

[피넛소스] 피넛버터 3큰술, 간장 1큰술, 얏술 2큰술, 설탕 1/2큰술

1. 라면을 쫄깃쫄깃하게 삶아 체에 밭쳐 물기를 빼 놓는다.
2. 배추는 5㎝ 길이로, 표고버섯은 밑동을 떼고 어슷하게 2등분으로, 대파는 어슷하게 썰고 당근은 꽃 모양을 만든다.
3. 다시마는 마른 행주로 깨끗이 닦고 전골 냄비에 넣어 다시 국물을 우려 내어 식성에 따라 라면 스프를 풀어준다.
4. 다시물은 간장으로 색을 맞추고 소금 간을 한다. 여기에 나머지 재료들을 넣고 함께 끓여가면서 참깨소스와 피넛소스를 찍어 먹는다.

◆라면 김말이 튀김

분량 2인분 / 난이도. 보통 / 열량 403㎉ / 조리시간 40분

[재료] 김 2장, 라면 1개, 밀가루·식용유·당근·설탕 각 약간

1. 라면은 꼬들꼬들하게 삶아 찬물에 헹구어 물기를 뺀다.
2. 김으로 말았을 때 지름이 4㎝ 정도 되도록 면을 잡고 가지런하게 정리한다.
3. 김의 한쪽 면에 밀가루를 뿌린 뒤 ②의 라면을 놓고 돌돌 말아 6등분해서 노릇하게 튀긴다.
4. 기름을 뺀 뒤 뜨거울 때 설탕을 뿌려 낸다.

"MCM, 2020년 매출 2조 목표"

새로운 명품 브랜드로 육성 전 세계 매장 450개로 확대

"MCM을 2020년까지 연 매출 2조원대의 '명품 브랜드'로 만들겠습니다."

독일 패션 브랜드 MCM을 운영 중인 성주그룹 김성주(사진) 회장은 28일 서울 강남구 도산대로 신사옥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MCM의 비전과 목표를 발표했다.

김 회장은 전 세계 MCM 매장을 현재 300개에서 2020년까지 450개로 확대, 7000억원대인 연 매출을 2조원대로 키운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달 독일 뮌헨 단독매장을 시작으로 미국·몰디브·일본 등 올해 말까지 10여 개국에 21개 점포를 열 예정이다.

이날 김 회장은 "밀레니엄 세대의 소비자들은 명품이 하나의 상품을 넘어 라이프 스타일로 실현되길 원한다"면서 새로운 명품(New School of luxury)의 기준을 제시했다. 그는 MCM이 캐주얼 패션의 대명사로 통하던 '백팩'을 명품화시킨 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말했다.

김 회장은 "기존의 명품이 가격과 브랜드 전통을 통해 인지돼 왔다면 MCM은 밀레니엄 소비자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이들의 라이프 스타일을 선도하는 명품을 선보이겠다"고 덧붙였다.

MCM은 새로운 명품 브랜드로서 위상을 정립하기 위해 ▲디자인 자산 강화 ▲연구개발(R&D) 구축 목표 등 다양한 전략을 내놨다.

먼저 성주그룹은 유럽에 최고 수준의 디자인 센터를 세우고, 해외 유명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를 적극 영입한다는 방침이다. 더불어 R&D 센터 투자도 강화하고 핸드백을 넘어 의류·액세서리·생활소품 등으로 제품군을 다각화해 라이프 스타일 전반에 변화를 가져오는 브랜드로 볼륨을 키운다는 목표다.

더불어 연간 7조원대의 국내 면세점 시장에서 전체 1위(현재 종합 3위) 까지 2위를 차지하겠다는 청사진도 제시했다.

김 회장은 "MCM은 한국 최초로 유럽 럭셔리 브랜드를 인수해 세계적인 패션 하우스로 성장시킨 유일한 브랜드"라며 "기존의 틀을 깨는 21세기형 글로벌 노마드 라이프스타일 브랜드로서 위상을 증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지원기자 sjw@metroseoul.co.kr

쉽게 입는 가을 캠퍼스 룩

데님은 '톤온톤', 스트라이프는 '남들과 다르게'

대학가는 2학기 개강이 코앞이다. 편안스러움과 선선함이 함께 하는 가을 날씨, 개강을 앞둔 대학생들은 옷 입기가 여간 까다로운 게 아닐 것이다. 특히 오랜만에 친구들과 만나는 자리인 만큼 스타일도 신경 쓰이는 부분 중 하나일 터. 눈에 띄는 유행 아이템보다는 어디에나 두루 입을 수 있는 기본 아이템을 준비해 믹스매치하면 손쉽게 멋스러움을 연출할 수 있다. 특히 데님 소재의 옷과 스트라이프(줄무늬)가 가미된 상의는 기본 중의 기본이기에 실패확률이 적어 눈여겨볼 만하다.

상·하의 모두 데님 소재로 매치하는 청청 패션은 가을에 특히 주목 받는 스타일링 방법이다. 자칫 촌스러운 느낌을 줄 수 있으니 가장 실패할 확률이 적은 톤온톤 매치를 시도하는 것을 추천한다. 톤온톤 기법은 같은 색 계열의 명도와 채도가 다른 옷을 입는 것으로 데님의 경우 아이스 블루부터 다크 블루까지 다양한 색상의 제품을 활용할 수 있다. 이때 하의는 조금 어두운 데님을 입고 상의는 밝은 톤을 매치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누구나 하나쯤은 가지고 있을 법한 스트라이프 패턴의 제품은 어떤 아이템과 매치해도 잘 어울리는 특징이 있다. 하지만 같은 옷을 입은 사람들을 여럿 만나기 십상인데 이럴 때는 독특한 '컬러 블록'이 가미됐거나 디자인에 변화를 준 아이템을 입으면 도움이 된다.

이번 시즌 스트라이프는 티셔츠뿐만 아니라 원피스와 셔츠 등 다양한 디자인의 제품이 출시됐으며 굵기는 담리한 아이템들도 눈에 띈다. 줄무늬의 간격이나 색상에 따라 전혀 다른 느낌을 줄 수 있는 패턴이기 때문에 조금만 신경 써도 남들과 다른 멋을 낼 수 있다.

/김학철기자 kimc@metroseoul.co.kr

올가을 '컬러 슈즈' 인기

평범한 '놈코어 패션'에 포인트 역할

이번 시즌 평범한 '놈코어 패션'이 대세라지만, 무조건 단순함만 고집해서는 지루해 보이기 십상이다. 자신만의 개성이 드러나는 아이템으로 '엣지'를 더해줘야 패션 피플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다. 슈즈 브랜드 캐터필라 관계자는 "독특한 디자인 혹은 화려한 색상의 신발은 절제된 올 가을 패션을 한층 돋보이게 만들어 줄 것"이라고 조언했다.

캐터필라가 최근 선보인 '펀 보 스니커즈'는 스트리트 패션과 미니멀리즘에서 영감을 받아 젊고 트렌디한 디자인이 특징이다. 합성 피혁 소재를 사용해 깔끔한 느낌을 준다. 전체적으로 블랙·브라운 등 어두운 색상이지만 신발끈을 레드·화이트 등 포인트 컬러로 매치해 멋스럽다.

자체만으로도 톡톡 튀는 '컬러 슈즈'도 눈길을 끈다.

원색의 신발은 화이트 셔츠·데님 팬츠와 같이 심플한 옷차림에 개성을 불어넣어 준다. 컬러풀한 신발을 신을 때는 팬츠나 아가일 패턴의 양말과 매치하면 훨씬 감각 있어 보인다. 단 바지는 롤업해 슈즈와 양말이 눈에 띄도록 연출하는 게 좋다.

금강제화 관계자는 "최근 편안함과 실용성을 강조하는 스타일이 각광을 받으면서 신발 역시 아찔한 킬힐보다는 운동화나 컴포트 슈즈가 인기"라며 "대신 색상은 이전보다 화려해진 것이 특징"이라고 설명했다. /

시대 트렌드 반영하며 진화하는 완구

전자카드 시스템·여성 과학자 등 반영

시대가 변하면서 완구도 진화하고 있다. 기술의 발달에 따라 장난감이 점차 정교해지거나 트렌드가 반영돼 새로운 완구가 만들어지기도 한다. 아예 완구로 시대의 변화를 읽을 수 있기도 하다.

해즈브로의 '모노폴리'도 현대 신용사회의 면모가 반영된 '모노폴리 전자카드'를 선보였다. 모노폴리 전자카드에는 지폐를 이용했던 기존 게임과 달리 전자카드를 긁어 총 잔고를 기록해주는 전자카드 시스템이 도입됐다. 각 플레이어에게 주어지는 전자카드를 사용해 임대금이 있을 때마다 카드 결제기를 이용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고 결제도 빠르게 진행된다.

시대상의 변화에 맞추어 여성의 활발한 사회 진출의 모습을 녹여낸 완구도 늘고 있다. 그 동안 남성 캐릭터 위주라는 지적을 받아왔던 레고는 여성 과학자 캐릭터를 내세운 신제품 '연구소'를 이달 초 선보였다. 고생물학자와 천문학자, 화학자 등 3명의 여성 과학자 캐릭터로 구성돼 있으며 화학 연구실 망원경·공룡 뼈 등 세밀하게 묘사된 도구도 포함돼 있다.

그동안 당대의 이상상을 반영해 진화해온 마텔의 바비인형도 올해 출시 55주년을 맞아 직장여성 바비로 재탄생 5개 화제를 모았다. 직장 여성 바비는 정장 원피스 차림에 검은색 핸드백과 함께 태블릿 PC와 스마트폰을 들어 완벽한 커리어 우먼의 모습을 반영했다. 그 동안 출시된 150여 종의 바비 가운데 사회상을 가장 많이 반영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정혜인 기자 hijune04@

/미스 제공

쥬얼리 예원, 가을화보 '베이글녀' 인증

스우살 속옷 브랜드 예스(Yes)는 전속모델로 활동 중인 쥬얼리의 예원과 함께한 2014 가을 이너웨어 화보를 28일 공개했다.

이번 가을 화보는 어텀홀릭(Autumn Holic)을 콘셉트로 가을 인테리어가 돋보이는 실내에서 촬영해 포근하고 은은한 가을 감성을 담았다.

귀여운 외모와 재치 있는 입담으로 발랄한 모습을 보여온 예원은 이번 화보를 통해 여성스러운 20대 소녀의 모습을 완벽히 소화해 눈길을 끌었다.

화보 속 예원은 올 가을 트렌드가 반영된 파스텔 톤의 이너웨어를 입고 '베이글 몸매 끝판녀'라는 명성에 걸맞는 넘치는 볼륨감을 드러냈다.

/김학철기자

“써봐야 좋은 걸 알지~”

뷰티업계, '체험 이벤트' 잇따라

뷰티업계가 제품을 직접 써 볼 수 있는 체험 이벤트를 다 각적으로 펼치고 있다.

남성 스킨케어 브랜드 랩 시리즈는 수분 젤 크림 '에이지 레스큐+ 워터-차지드 젤 크림' 출시를 기념해 29일 AK플라자 분당점을 시작으로 백화점 릴레이 체험 이벤트를 진행한다. 행사는 10월 24~26일 신세계백화점 경기점을 끝으로 막을 내린다.

랩 시리즈는 백화점 매장에 방문한 고객들에게 자신의 피부 타입에 맞는 피부 측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신제품을 체험할 수 있는 게임존을 함께 마련한다. 특히 '노트를 찾아라' 게임을 통해 에이지 레스큐+ 워터-차지드 젤 크림의 기술력을 알릴 예정이다.

CNP차앤박화장품은 최근 리뉴얼해 선보인 '에이-클린' 라인의 체험단을 선착순 1만명 모집한다.

신청은 CNP차앤박화장품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 참가자에게는 에이-클린 라인 클렌저·토너·모이스처라이저 등 3종 체험분을 각 4회씩 전달할 예정이다. /사치정기자

할인에서 문화 이벤트로

유통사 멤버십 포인트 진화

유통 업계들이 공통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이 멤버십 포인트 제도이다.

마케팅 기법 가운데 가장 보편화 된 멤버십 포인트 마케팅은 구매금액의 일정 비율을 적립해 고객에게 다시 돌려주는 것. 지금까지는 단순히 매장 내에서 물건을 구입할 때만 사용됐다. 하지만 최근에는 다양한 이벤트와 연계 되면서 재미있는 문화 트렌드로 자리잡고 있다.

커피전문점 할리스커피에서는 멤버십 포인트 5000점(1매)으로 성시경·윤종신 등 국내 대표 뮤지션이 대거 참여하는 '할리스커피 페스티벌' 티켓을 교환 할 수 있다.

오는 10월 3일 올림픽공원 88잔디마당에서 열리는 '할리스커피 페스티벌'에는 이런 방식으로 고객 1만명이 초대될 예정이다.

이번 페스티벌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9월 11일부터 30일 사이에 할리스커피 홈페이지에서 페스티벌 티켓으로 교환해야 한다. 단 1인당 최대 2매까지 티켓 교환이 가능하며 타인에게 양도는 불가하다.

아모레퍼시픽은 오는 31일까지 아모레퍼시픽의 통합 멤버십 서비스인 뷰티포인트를 우산과 교환해주는 쉐어 유어 엄브렐러(Share Your Umbrella)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

이 캠페인은 구매 때 주어지는 뷰티포인트 중 9900포인트와 캠페인 전용 제작 우산을 교환할 수 있다. 전국 백화점과 마트·아리따움·이니스프리·에뛰드·오설록 매장과 아모레퍼시픽 쇼핑몰에서 참여할 수 있다.

특히 올해 우산은 평소 다양한 영화감독, 미술 등의 다양한 예술 활동으로 예술가의 입지를 넓혀가고 있는 배우 하정우가 그린 플라이 미 투 더 스타(Fly Me To The Star)를 모티브로 제작한 하나뿐인 우산이어서 더욱 특별하다.

SPC는 파리바게뜨·배스킨라빈스·던킨도너츠 등 그룹 계열사 매장에서 결제 시 적립한 포인트의 10%를 성금으로 기부하는 '해피포인트카드 기부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정영일기자 jyi@metroseoul.co.kr

SNS 공감 콘텐츠 300만뷰 돌파

동아오츠카(대표 이원희)의 포카리스웨트는 공식 페이스북 페이지를 통해 게시한 콘텐츠 '공감은 배웠는데 타이밍을 못 배운 남친'이 이틀 만에 300만뷰를 돌파했다고 28일 밝혔다.

모바일 메신저를 통해 커플이 대화하는 모습을 그린 이번 콘텐츠는 '공감은 배웠는데 타이밍을 못 배운 남친'이라는 솔지만 강렬한 설명으로 웃음을 자아낸다. 이 외에도 포카리녀가 썸남과 헤어진 이유, '커플보다 솔로가 좋은 이유' 등 쉽게 공감할 수 있는 콘텐츠로 고객들의 자발적인 입소문을 이끌어내고 있다. 포카리스웨트 측은 일상의 소소한 에피소드를 콘텐츠에 반영해 고객들의 공감을 얻고 있다고 전했다.

심아란 동아오츠카 SNS담당자는 "매스미디어를 통해서는 제품의 우수성을 강조하는 반면 소셜미디어에서는 소비자와 좀 더 가까워질 수 있도록 공감대 형성에 힘쓰고 있다"고 설명했다. /송태민기자

비락식혜, '의리' 열풍 이어가

젊은 고객 늘어나 매출 껑충

김보성을 모델로 한 팔도 비락식혜의 '으리(의리)' 광고가 5월 유튜브에 공개된 이후 현재까지 300만건을 넘기며 인기를 이어가고 있다.

이에 힘입어 5월부터 7월까지 1990만개가 판매되며 판매량이 전년 동기보다 34.5% 신장했다. 특히 할인점에서는 42.6%, 편의점에서는 81.9%가 신장되는 등 젊은 층을 주요 구매고객으로 유입하는 효과가 있었다.

팔도는 열풍을 이어가기 위해 우정에 대한 '의리'를 콘셉트로 한 '비락식혜 의리 인증샷 콘테스트'를 팔도 페이스북에서 9월 14일까지 벌인다. 참여를 원하는 사람은 비락식혜와 함께한 의리 있는 모습을 사진으로 찍어 팔도 페이스북에 응모하면 된다.

1등(1명)에게는 선글라스를 그리고 1등으로 선정된 사람과 함께 인증샷에 참여한 전원에게는 에버랜드 자유이용권을 증정한다. 2등(3명)과 3등(5명)에게는 미니냉장고와 이천쌀을, 4등(100명)에게는 비락식혜 기프티콘을 경품으로 지급한다. /송태민기자

업계 최초 외국인 대상 주방·소형가전 매장 신개념 최고형 가전관리점 전자랜드프라이스킹(대표 홍봉철)이 업계 최초로 외국인 관광객을 주대상으로 한 익스프레스 주방·소형가전 특화매장인 '전자랜드 쿡앤킹' 명동점을 28일 오픈했다. /전자랜드프라이스킹 제공

커피전문점 고객, 에스프레소 선호

스타벅스, 개점 15주년 맞아 고객 설문조사

하루 중 오후 1시부터 5시 사이에 커피전문점을 방문해 카페 아메리카노와 카페 라떼 같은 에스프레소 음료를 마시는 소비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스타벅스커피 코리아(대표 이석구)는 개점 15주년을 기념해 지난 7월 말부터 스타벅스 코리아 페이스북 방문자 3만여명을 대상으로 커피 소비 성향에 대해 설문조사를 벌이고 이 같은 결과를 얻었다고 28일 밝혔다.

커피를 주로 즐기는 시간대는 오후 1시부터 5시 사이가 42.7%로 가장 많았으며 '오후 5시 이후 저녁시간(22%)', '오전 5시에서 11시 사이(14.3%)', '오전 11시부터 오후 1시 사이(13.4%)' 로 답했다.

선호하는 음료는 응답자의 56.6%가 '카페 아메리카노·카페 라떼·카푸치노 등 에스프레소 음료'를 선택해 깊고 깔끔한 커피 고유의 풍미를 즐기는 기호를 엿볼 수 있었다. 이어 '카라멜 마끼아또·카페 모카 등 단맛이 가미된 에스프레소 음료(19.4%)', '얼음을 갈아 만드는 혼합 음료인 프라푸치노(16.2%)', '오늘의 커피나 아이스 커피 등의 브루드 커피(4.3%)', '기타 음료(1.7%)' 순이었다.

커피전문점을 방문하는 가장 큰 이유로는 전체 응답자 중 41.2%이 '커피 자체를 즐기기 위해서'라고 응답했으며 '타인과의 만남 및 대화를 위해서(28.7%)', '개인적인 시간 활용을 위해서(11.2%)', '커피와 함께 디저트를 즐기기 위해서(11.2%)', '회의나 비즈니스 미팅을 위해서(1.7%)'가 뒤를 이었다.

/스타벅스커피 코리아 제공

/장혜은기자 hjang@metroseoul.co.kr

“제가 바로 경기도의 딸 입니다”

'경기도의 딸'이라는 수식어 감사할 따름
쇼미더머니3, 출연한 것 절대 후회하지 않아
남녀노소 누구나 따라할 수 있는 랩 하고파

첫 번째 싱글 '라이크 잇' 발표한 신예 래퍼 키썸

신예 래퍼 키썸(20·본명 조혜령)의 이름은 독일어로 음악을 뜻하는 'Musik'을 거꾸로 쓴 것이다. 음악에 대한 열정이 묻어나는 이름이다. 하지만 그에겐 조금 특별한 별명이 있다. 바로 '경기도의 딸'이다. 키썸은 정식 데뷔를 하기 이전에 경기도 G버스 TV의 '청기백기'를 통해 얼굴을 알렸다. 버스를 이용하는 시민들은 스스로를 래퍼라고 소개하는 키썸에 대해 궁금해 하기 시작했다.

◆ 경기도의 딸

키썸은 앞서 '풋 잇 다운(Put it down)' '라이어(Liar)' 등의 노래를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여전히 사람들은 그를 '청기백기녀' 또는 '경기도의 딸'로 바라본다. 랩이란 장르의 특성 상 귀엽게만 보이는 그 별명이 싫을 법도 한데 그는 손을 가로 저었다.

"'청기백기'를 하면서 녹화할 때마다 늘 찾아주시는 고정 팬도 생겼어요. 한 다섯 분 정도 계신데 어떻게 촬영하는 곳을 알고 늘 와서 응원해주세요. 감사할 뿐이죠."

최근 엠넷 래퍼 서바이벌 프로그램 '쇼미더머니3'에 출연해 3차 예선까지 통과했으니 래퍼로서 본격적인 행보를 걷기 위해 '청기백기'는 이제 그만둘 때도 되지 않았을까.

"시간이 참 빨라요. '청기백기'를 한 지 벌써 1년이나 됐어요. 하지만 당장 관둘 생각은 전혀 없어요. 전 래퍼 키썸이기도 하지만 경기도의 딸이기도 하니까요."

아이러니하게도 경기도의 딸이 사는 곳은 서울이다. 이에 대해 그는 웃으면서 "서울사람인 거 이미 많이들 아시더라"며 차분히 설명했다.

"서울에서 살고 있지만 안산에서도 살았어요. 어떤 분들께선 '배신감 든다'고 하시더군요. 하지만 전 그래도 계속 '청기백기'를 하며 '경기도의 딸'로 남고 싶어요(웃음). 어른들은 랩을 잘 모르시잖아요. 근데 '청기백기' 덕분에 길 가다가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절 알아봐 주세요."

놀라운 사실은 그가 별 다른 대본 없이 혼자 '청기백기'를 이끌어 간다는 것이다. '예능감이 있다'는 칭찬에 그는 "기회가 닿는다면 '진짜 사나이'나 '정글의 법칙' 같은 방송에도 한 번 출연하고 싶어요. 운동신경이 꽤 좋은 편인데 예전엔 남자애들이랑 축구하면서 제가 골을 넣었어요. 그것도 슬라이딩 슛이요(웃음)."

◆ 경기도를 넘어서 전국으로

그가 '쇼미더머니3'에 출연한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대중들은 래퍼 키썸에게 큰 기대를 걸었다. 2차 예선까진 순탄했다. 그러나 3차에선 가사를 잊어버리는 실수를 했고 심사위원(프로듀서) 스윙스에게 냉혹한 심사평을 듣고 눈물을 보였다.

"혼나서 운 게 아니라 가사를 잊은 스스로에게 실망해서 울었어요. 독설 때문에 운 건 절대 아니고 가사가 완벽하게 제 입에 붙도록 노력했으면 안 틀렸을 텐데 그 단계까지 가서 실수한 스스로를 자책하는 눈물이었어요. 그리고 저 혼자만 틀린 게 아니라 다 같이 사이좋게 실수했으니까 괜찮았어요(웃음). 그 때 녹화가 새벽 4시였어요. 졸리기도 하고 앞에 심사위원들이 있으니까 긴장도 되고 옆에 같이 한 언니도 실수한 거 보고 더 긴장했고, 난리도 아니었죠."

그는 '쇼미더머니3' 출연을 인생 최대의 경험이라고 말했다.

"사실 시즌1부터 출연하고 싶었어요. 쟁쟁한 분들 사이에서 하려니 부담도 컸지만 덕분에 래퍼로서 알려질 수 있었고 좋은 분들을 많이 만났어요. 사람들은 래퍼라고 하면 무섭거나 센 이미지만 떠올리지만 실제로 만나면 다들 착하고 다정해요."

◆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

그의 말대로 래퍼는 강인하거나 어둡거나 우울한 느낌이 강하다. 하지만 그는 정말 귀여운 딸이자 손녀, 여동생 같았다. 그가 부르는 노래 역시 친근하고 발랄하다. 그의 신곡 '라이크 잇(Like it)'의 부제는 '버스 안에서'다. 1990년대 인기를 끌었던 자자의 히트곡과 같다. 1994년생인 키썸은 이 노래에 대해 어떻게 설명할까. 키썸은 자자 '버스 안에서'의 후렴구를 능숙하게 흥얼거리며 "마음에 드는 남자애가 있는데 다른 남자애들만 절 좋아할 뿐 정작 짝사랑하는 그는 절 바라봐주지 않아 답답하다는 내용"이라고 말했다.

래퍼들은 가사를 직접 쓴다. 가사는 래퍼에 있어서 무기이자 스스로를 설명하는 도구다. '라이크 잇'의 가사는 짝사랑에 고민이 많은 스무 살 아가씨의 이야기로 키썸의 경험이 어느정도 녹아들어있을 터.

"연애 안 한 지 3년 정도 됐어요. 남자를 만날 때 옷 고르고 화장하고 꾸미는 게 귀찮아요. 지금은 친구들이랑 놀면서 재밌는 가사가 떠오르면 적어두고 그렇게 지내는 게 더 좋아요. 남녀노소 모두가 다 좋아하고 따라할 수 있는 랩을 쓰고 싶어요. 저의 할머니께서 제 랩을 좋아해주세요. 그게 정말 큰 힘이 돼요. 사람들이 좋아하는 랩을 하고 싶어요."

키썸은 29일 첫 번째 싱글 발매와 함께 안양을 시작으로 G버스 TV가 아닌 현장에서 팬들을 만날 계획이다.

"작은 무대든 거리 공연이든 가리지 않아요. 제가 직접 찾아가서 랩을 들려드리고 싶어요. 한결같다는 건 좀 어려운 일이지만 그래도 늘 한결 같은 사람이 될 거예요."

/김지은 기자 kimjieun@metroseoul.co.kr
사진/한제훈(라운드테이블) 디자인/원은미

10년 장수 '의리' 그룹 슈퍼주니어 컴백

2년 만에 정규 7집 '마마시타' 발매 "90년대 느낌 가미… 전 연령대 아울러"

그룹 슈퍼주니어(이특·규현·희철·강인·신동·성민·은혁·동해·시원·려욱 사진)가 2년 2개월 만에 정규 7집 '마마시타'로 돌아왔다.

전역과 동시에 컴백한 리더 이특은 25일 논현동 임피리얼 팰리스 호텔에서 열린 앨범 발표회에서 "매너리즘에 빠지지 말자"는 목표로 앨범을 준비했다고 말했다.

이특은 "10년 차 그룹이고 연습생 기간까지 합치면 14년이 됐다"며 "'귀를 닫고 있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어 주변의 의견을 들으려고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앞선 앨범보다도 멤버들의 참여가 많았다. 좋은 사람들과 함께 일 한다는 것 자체가 즐겁고 활동하면서 행복해지는 게 목표"라고 덧붙였다.

강인은 10년 동안 팀을 유지할 수 있는 원동력에 대해 "아직도 숙소 생활을 한다"고 말했고 신동은 "오랫동안 멤버들끼리 살다 보니 멤버별 이해도가 높아졌다. 배려하다 보니 다투지도 않는다"고 슈퍼주니어의 의리를 언급했다. 은혁은 "숙소 생활을 그만 둘 생각이 없다"며 "딱히 나가 살 곳이 없다. TV 다시 보기도 회사 경비로 볼 수 있어서 숙소가 좋다"고 해 웃음을 자아냈다.

그 동안 슈퍼주니어 멤버들은 슈퍼주니어-M, 슈퍼주니어 동해&은혁 등의 유닛과 개별 예능 활동을 했다. 현재 공익근무 중인 희철·예성을 제외하고 모든 멤버가 출연한 것은 오랜만이기 때문에 이번 컴백에 대한 전세계 팬의 관심이 높다.

신동은 "음악 방송 시청률이 잘 나오지 않아 아쉽다. 시청자와 관객에게 슈퍼주니어의 무대를 많이 보여주고 싶다"고 향후 활동 계획을 전했다. 려욱은 "정규 7집을 10곡으로 꽉 채웠다. 군더더기 없이 깔끔하다. 우리만의 음악성을 보여줄 것이고 '역시 7집이구나' 라는 평가를 받았으면 좋겠다"고 자신감을 보였다.

이특은 "예전 곡들은 혼자 부르기 힘들고 반복되는 후크 송이었다"며 "'마마시타'는 90년대 느낌이 가미돼 10대와 20대뿐만 아니라 30대도 함께 부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규 7집 타이틀곡 '마마시타'는 스페인어로 '매력적인 예쁜 여자'란 뜻이다. 인도풍의 드럼 사운드와 피아노 선율이 인상적인 어반 뉴 잭 스윙 장르의 곡이다. 앨범 수록 곡 전체는 오는 29일 음원 사이트에 공개되며 앨범은 내달 1일 발매될 예정이다. 슈퍼주니어는 26일 KBS2 '뮤직뱅크'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다.

/[illegible]기자 [illegible]@metroseoul.co.kr

정동하, 美 최고 뮤지션과 작업

10월 첫 솔로앨범 발매

가수 정동하(사진)가 미국에서 자신의 생애 첫 솔로앨범을 녹음했다.

소속사 에버모어뮤직은 25일 "지난 24일부터 26일까지 3일간 미국 할리우드에 소재하고 있는 오션웨이 스튜디오와 웨스트 레이크 스튜디오에서 정동하의 솔로 앨범 녹음을 했다"고 밝혔다.

데뷔 9년 만에 생애 첫 솔로앨범을 발표하는 정동하는 오션웨이 스튜디오와 웨스트 레이크 스튜디오에서 작업했다. 오션웨이 스튜디오는 나탈리 콜, 에릭 클랩튼, 마돈나, 본 조비, 롤링스톤즈 등 셀 수 없는 많은 팝·록 뮤지션들이 녹음을 진행한 50년 역사를 자랑하는 곳이다.

한편 정동하는 오는 10월초 자신의 생애 첫 솔로앨범을 발표할 예정이다. /[illegible]기자

윤미래 '괜찮아, 사랑이야' OST로 차트 점령

가수 윤미래(사진)가 또 한 번 OST 강자로 떠올랐다.

SBS '괜찮아, 사랑이야'(이하 '괜사') OST '너를 사랑해'로 음원 차트 1위를 기록했다.

윤미래는 25일 '너를 사랑해'로 벅스뮤직, 엠넷, 올레, 소리바다, 네이버 뮤직, 지니 등 6개 음원차트에서 1위를 차지했다. 지난 27일 음원 공개 직후 1위에 오른 뒤 2일 연속 정상을 지키고 있다.

'너를 사랑해'가 등장하면서 기존 인기 곡들은 한 계단씩 순위가 내려갔다. 현재 벅스 기준 2위는 씨스타의 '아이 스웨어', 3위는 영화 '비긴 어게인' OST '로스트 스타즈', 4위는 위너의 '공허해'가 이었다.

'너를 사랑해'는 R&B 리듬과 어쿠스틱 기타 선율이 돋보이는 곡이다. 6회 장재열(조인성 분)과 지해수(공효진 분) 키스신 장면에 삽입됐다. 윤미래의 소울풍의 보컬과 '널 보면 보고 싶고' 등의 감성 가사가 어우러졌다.

/[illegible]기자

될 것도 안 되는!
네 남자의
사나운 로맨스
tvN 금토드라마
아홉수 소년
9 19 29 39
매주 금,토 저녁 8시 40분 tvN 방송 / 8월 29일 첫방송
김영광 | 경수진 | 오정세 | 유다인 | 육성재

신 예능 MC 트로이카 '우뚝'

전현무·정형돈·김병만… 개성 있는 진행·뚜렷한 콘셉트 호평

플라이투더스카이 콘서트

플라이투더스카이(사진)가 앙코르 콘서트 '컨티뉴엄'을 전국투어로 확대 진행한다.

소속사 에이치투미디어는 "오는 9월 13~14일 양일 간 펼쳐지는 서울 공연을 시작으로 10월 말까지 지방 5개 도시를 순회하며 앙코르 콘서트를 개최한다"고 28일 밝혔다.

플라이투더스카이는 전주(9월 27일), 울산(10월 4일)과 성남(10월 11일), 창원(10월 19일), 광주(26일) 공연을 확정지은 상황이다.

플라이투더스카이는 "관객 여러분의 성원에 힘입어 전국투어까지 진행하는 만큼 관객 여러분께 잊지 못할 최고의 공연을 선사하기 위해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며 "추억을 간직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을 만들어 드리도록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정성현기자

'슈스케4' 유승우 앨범 발표

전곡 작사·작곡 참여

엠넷 '슈퍼스타K4' 출신 가수 유승우(사진)가 가요계에 컴백한다.

유승우는 28일 신곡 '나 말고 모두 다' 뮤직비디오를 선 공개했다. 오는 9월4일에는 첫 번째 정규앨범 '유승우'를 통해 본격적인 가요계 활동에 나선다.

자신의 이름을 내건 앨범 '유승우'는 유승우 본인이 전곡을 직접 작사·작곡했다. 늦여름과 초가을의 시점에서 지난 여름날을 회상한다는 콘셉트를 통해 희망, 가족, 학창시절 등 다양한 주제의 곡을 담아냈다. 이번 앨범에는 지난 7월 발표했던 '밤이 아까워서'도 수록됐다.

타이틀 곡 '나 말고 모두 다'는 지난 크리스마스, 거리에 친구, 동생, 형, 어르신 등 너나 할 것 없이 손을 커플로 있는 것을 보고 충격에 휩싸인 유승우가 '솔로부대'를 대변하고자 탄생시킨 곡이다. 유승우는 대다수 사람들이 공감할 만한 이야기를 가사로 적어 솔로의 마음을 전하는 동시에 결국 사랑이란 얼마나 아름다운지 알려줄 예정이다.

소속사 UK뮤직 관계자는 "이번 앨범은 전곡이 유승우에 의해 탄생한 만큼 유승우만의 소년감성과 음악적 색깔이 묻어났다"고 밝혔다.

/이성훈기자

예능 대표 MC 선들인 유재석·강호동의 뒤를 잇는 신(新) 예능 MC 3인방이 있다. 전현무·정형돈·김병만이 '그들'이다. 이들은 개성 있는 진행과 뚜렷한 캐릭터로 방송가를 공략하고 있다.

◆ '민족MC' 전현무

방송인 전현무(사진 오른쪽)는 JTBC '히든싱어'로 '민족 MC' 타이틀을 얻었다. 어느새 2012년 KBS 퇴사 후 예능 진행자로 확실히 자리잡았다. '히든싱어'에서 개그맨 못지 않은 입담으로 프로그램 몰입도를 높이고 있다. 일반인 출연자가 다수인 모창 능력자들이 자연스럽게 방송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다. 게스트로 출연한 연예인에 대해선 거침없는 발언을 주고 받으며 프로그램 재미를 이끌고 있다. 전현무의 입담은 JTBC '비정상회담'에서도 적절히 녹아 난다. 11개국 출신 외국인 청년들이 등장해 한국과 세계 청년들이 봉착한 현실 문제를 다루는 이 토크쇼에서 그는 적재적소에 유머를 더 시청자로부터 "진행이 맛깔 난다"는 호응을 받고 있다.

◆ 아이돌계의 유재석 정형돈

정형돈(왼쪽)과 아이돌의 궁합은 의외의 성과를 낸다. MBC 에브리원 '주간아이돌'에서 100여 팀의 아이돌을 만나더니 '형돈이와 대준이'의 히트제조기 예선 프로젝트 그룹 '박병(그룹 비투비 육성재, 빅스 엔, 켄 갓세븐 잭슨)'을 제작했다. 박병의 곡 '스트레스 컴온'은 국내 음원사이트 상위권에 이름을 올렸으며 뮤직비디오는 공개되자마자 조회수 10만 이상을 기록할 정도로 화제였다. 한때 정형돈은 MBC '무한도전'에서 캐릭터 없이 오래가는 개그맨이라는 혹평을 받았다. 진행자로서의 진가는 '주간 아이돌'에서 발휘됐다. 방송은 현재 아이돌이 가장 출연하고 싶은 프로그램 1순위로 꼽히고 있다. 여기에는 빵 터지는 웃음보단 자분하지만 소소한 말장난을 거는 정형돈의 진행 방식이 큰 역할을 했다. 이는 MC가 돋보이는 프로그램보다 주인공을 받쳐주는 진행자 본연의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 도전의 아이콘 김병만

김병만(가운데)은 SBS '정글의 법칙'에서 열악한 상황과 주어진 재료만으로 생존하며 도전의 아이콘으로 불린다.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는 그의 저력은 열정과 배려에서 비롯된다는 분석이다. '정글의 법칙' 팀을 이끌면서 궂은 일에 앞장 서니 몸을 던지는 방송이 말으로 하는 진행보다 더 큰 감동을 줄 수 있다는 걸 보여준다. 오는 31일부터 매주 일요일 오후 4시에 방송되는 SBS '즐거운 가!'에선 집 짓기에 도전한다. 방송은 친환경 공동체 만들기 프로젝트로 마을 빈 곳을 골라 출연진이 직접 집을 짓고 지역주민들과 함께 텃밭을 가꾸며 농작물을 수확하고 가축을 기르는 리얼리티 프로그램이다. SBS 추석 특집 '주먹 쥐고 주방장'에선 중국 요리를 체험한다. '정글의 법칙'을 통해 다양한 요리 기술을 선보인 바 있어 요리 왕이 되려는 그의 도전에 시청자의 기대가 크다.

/정효진기자

tvN 아홉수소년

예능형 드라마가 뜬다

'아홉수 소년', '응답하라 1994' 열풍에 '황금거탑', 거탑 시리즈 인기 이어가나

지난해 '응사앓이' 열풍을 일으켰던 tvN '응답하라 1994'는 KBS2 예능 '해피선데이'를 만든 신원호 PD와 이우정 작가의 작품이다. 두 사람은 예능을 통해 익힌 감각을 드라마로 옮겼다. 기승전결의 구조가 아닌 첫 회부터 결말의 일부분을 보여준 뒤 '여주인공의 남편은 과연 누구일까'로 시작해 시청자들의 궁금증을 유발하게 만들어 큰 인기를 모았다.

29일 첫 방송을 앞두고 있는 '아홉수 소년' 역시 예능 프로그램 출신의 유학찬 PD와 박유미 작가가 의기투합한 드라마다. 특히 유 PD는 '응답하라 1994'의 공동 연출자로 '아홉수 소년'에서도 tvN표 예능형 드라마를 선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아홉수 소년'은 올해로 각각 9세, 19세, 29세, 39세를 맞은 한 집안 남자들이 연애와 사랑에서 지독한 아홉수를 겪으며 고군분투하는 이야기다. 유 PD는 "아홉수를 겪는 남자들 중 단 한 사람만이 사랑에 성공할 것"이라며 "방송을 보면서 어떤 커플이 연결될지 맞춰보는 것도 하나의 재미"라고 말했다.

단 한 쌍만이 연결되는 설정은 유 PD의 전작 리얼리티 예능 '더 로맨틱'에서 따온 것이다. 유 PD는 "KBS에 있을 당시 '스펀지'를 연출했었는데 극중 오정세 씨가 노총각 스타 PD로 등장해 '스폰지'를 연출하게 될 것"이라며 자신의 실제 경험도 드라마에 담을 것이라고 밝혔다.

예능 감각이 살아있는 드라마 중 대표적인 작품은 민진기 PD의 '거탑' 시리즈다. 배우들이 실명으로 등장하는 '푸른거탑'은 다양한 군대 에피소드와 각종 패러디로 인기를 모았다. '거탑' 시리즈의 매력은 드라마보다 한 편의 리얼리티 예능 같은 느낌이 강하다는 점이다. 현재 민 PD는 무대를 군대에서 농촌으로 옮겨 '황금거탑'을 선보이며 예능형 드라마의 인기를 이어가고 있다.

/김두연기자

인간 탐구하는 SF 액션

SF설정·영상미 장점…얕은 철학적 메시지 아쉬워

film review

장병호 기자 solanin@metroseoul.co.kr

■루시

뤽 베송 감독의 신작 '루시'는 하나에서 두 개, 그리고 네 개로 증식하는 세포들의 모습으로 막을 연다. 이어서 등장하는 것은 320만 년 전 지구에서 살았던 것으로 추정되는 루시라는 이름의 오스트랄로피테쿠스다. 손을 이용해 물을 떠먹는 루시의 모습과 함께 내레이션이 흐른다. "10억 년 전 우리는 생명을 받았다. 우리는 그것으로 무엇을 했지?" '루시'의 핵심적인 테마는 바로 이 질문에 있다.

영화는 평범한 삶을 살던 여자 루시(스칼렛 요한슨)가 범죄 조직에 의해 마약 운반책으로 이용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린다. 몸속에 마약을 숨긴 루시는 우연한 사건을 통해 마약으로 이용된 합성물질을 체내에 흡수하게 된다. 이로 인해 평소보다 더 많은 뇌용량을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능력을 지닌 루시와 그런 루시를 쫓는 범죄조직의 이야기가 90분의 러닝타임을 빼곡하게 채우고 있다.

액션영화로 포장돼 있지만 '루시'는 액션보다도 SF적인 설정이 더 눈에 띈다. 영화는 인간의 평균 뇌 사용량이 10%에 불과하다고 설정한다. 뇌의 극히 작은 부분만을 사용하는 대부분의 인간들이 오로지 자신의 감각에만 집중할 때 루시는 이를 뛰어넘어 외부 세계로 자신의 감각을 뻗어나간다. 사물은 물론 타인까지 마음대로 조종하는 루시의 모습은 슈퍼히어로 영화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익숙한 능력이다. 하지만 '루시'는 이를 뇌 사용량을 바탕으로 한 가상적인 설정으로 풀어내며 관객들의 흥미를 자극한다.

뤽 베송 감독은 "할리우드에서처럼 기계적으로 영화를 만드는 것은 못한다"고 말했다. 그 말처럼 '루시'는 액션 장르의 쾌감 속에 철학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다는 점에서 전형적인 할리우드 영화와 다르다. 범죄조직에 납치되는 루시의 모습과 사냥에 나선 표범의 모습을 교차시켜 인간 세계에서도 변함없는 약육강식의 논리를 강조하는 영화 초반부가 그 대표적인 장면이다. 인류의 역사를 거슬러 우주의 기원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영화 후반부의 현란한 영상미 또한 '루시'만이 지닌 장점이다.

다만 그 철학적인 메시지가 깊이 있게 다가오지 않는 점은 '루시'의 단점이다. 우주의 기원까지 장황하게 다루지만 결국 영화는 인간은 생존을 위해 자신을 먼저 생각하는 존재라는 뻔한 결론을 내릴 뿐이다. "우리는 10억 년 전에 생명을 받았다. 그걸로 뭘 해야 할지 이제는 알겠지." 영화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루시의 내레이션이 조금은 맥빠지게 다가올지도 모른다. 청소년 관람불가. 9월3일 개봉.

정경호·정유미·김새론 '맨홀'에 빠지다

스릴러 영화 '맨홀' 10월 개봉

정경호, 정유미, 김새론 주연의 스릴러 영화 '맨홀'(감독 신재영)이 오는 10월 개봉을 확정했다.

'맨홀'은 거미줄처럼 얽힌 지하세계인 맨홀을 지배하는 정체불명의 남자와 그 속으로 납치된 자들의 목숨을 건 생존 게임을 그린 영화다.

개봉 확정과 함께 공개한 티저 포스터는 주택가 골목길에 덩그러니 놓인 헤어밴드와 그 옆에 뚜껑이 열린 채 열려 있는 맨홀의 모습을 담았다. 티저 예고편은 도심 번화가부터 골목까지 자리잡은 수만 개의 맨홀을 중심으로 벌어지는 섬뜩한 사건을 예고하고 있다.

이번 영화에서 정경호는 맨홀에서 살아가는 의문투성이 남자 수철 역을 맡았다. 정유미와 김새론은 맨홀에서 벌어지는 사건에 휘말리게 되는 20대 여성과 청각장애 소녀를 연기했다.

'맨홀'은 도시의 일부지만 외부와 완벽하게 단절된 맨홀을 통해 기존 스릴러와는 전혀 다른 긴장감을 선사할 예정이다. 미쟝센 단편영화제 출신 신재영 감독이 메가폰을 잡았다. /장병호 기자

소지섭 리움미술관에서 만난다

10주년 기념 영상 출연…노 개런티 출연

배우 소지섭(사진)이 리움미술관 10주년 기념 프로젝트로 만들어진 단편 영상물 'q0'에 출연했다.

'q0'은 동일신라 유물인 금은장 쌍곡문 장식 조개의 단면과 역사를 가상적으로 재해석해 과거와 현재, 미래가 혼재된 서사를 담은 작품이다. 삶에 대한 철학적 성찰과 자각을 주제로 완성됐다.

소지섭은 이번 작품이 지닌 예술적 취지에 공감해 노 개런티로 출연을 결정했다. 미래와 과거, 현재를 넘나드는 연출로 1인3역을 선보였다.

연출은 현대 미술작가 문경원, 전준호 팀이 맡았다. 2012년 카셀 도큐멘타 국제미술전에 초청 받았으며 2015년 베니스 비엔날레 한국관에도 참여하는 세계적인 작가 듀오다. 'q0'은 지난 19일부터 열리고 있는 리움미술관 개관 10주년 전시 '교감'에서 소개되고 있다.

한편 소지섭은 지난 6월부터 시작한 아시아 투어를 성황리에 마쳤다. 오는 29일 중앙대학교 아트센터 대극장과 30일 연세대학교 대강당에서 열리는 한국 팬미팅을 앞두고 있다.

/장병호 기자

'마담 뺑덕' 정우성의 그녀 이솜은 누구?

모델 출신 기대주 첫 주연 도전

모델 출신 배우 이솜이 치정 멜로 영화 '마담 뺑덕'(감독 임필성)에서 정우성을 사로잡는 여인으로 스크린을 찾는다.

이솜은 지난 2010년 영화 '맛있는 인생'으로 배우로 데뷔했으며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별' '시이코메트리' 등의 작품에 출연했다. 올해는 '하이힐'과 '산타바바라'로 관객들과 만났다.

'마담 뺑덕'에서는 전작들과는 전혀 다른 매력을 선보인다. 이솜이 연기한 덕이는 답답한 일상 속에서 학규(정우성)를 만나 뜨거운 사랑을 나누지만 자기에게 돌아선 학규의 배신에 지독한 집착을 품게 되는 인물이다. 8년 뒤 위험한 복수를 다짐하는 양극단의 모습을 지닌 복합적인 캐릭터다.

이솜은 "감정 신들이 많아 욕심을 가졌다. 해보고 싶은 가장 큰 도전이었다"고 생애 첫 주연을 맡은 소감을 전했다. 이어 "8년 전 덕이는 사랑에 대해 아무 것도 모르는 순진한 여자라면 8년 뒤 덕이는 사랑에 대한 아픔도 있고 강한 느낌도 있는 여자다. 그럼에도 중점을 둔 것은 학규에 대한 사랑의 깊이였다"고 밝혔다.

'마담 뺑덕'은 '심청전'을 사랑과 욕망, 집착의 이야기로 비틀어 두 남녀의 지독한 사랑과 집착을 그린 작품이다. 오는 10월 개봉 예정이다. /장병호 기자

챔스 2경기 연속 골로 팀 본선 진출 이끌어

한국 축구대표팀의 현재이자 미래인 손흥민(22·사진)이 독일 레버쿠젠의 챔피언스리그 예선 진출부터 본선행까지 해결사 역할을 톡톡히 했다.

28일(이하 한국시간) 손흥민은 독일 레버쿠젠의 바이아레나에서 열린 덴마크 코펜하겐과의 2014-2015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 플레이오프 2차전에서 경기 시작 2분 만에 골을 넣으며 레버쿠젠의 4-0 대승을 이끌었다.

이날 경기에서 손흥민은 최전방 공격수 슈테판 키슬링과 패스를 받아 왼발 슈팅으로 골을 넣었다. 1차전에서도 3-2로 승리한 레버쿠젠은 손흥민의 활약에 힘입어 지난 시즌에 이어 또 한 번 챔피언스리그 본선 무대 진출에 성공했다.

손흥민은 지난 시즌을 앞두고 레버쿠젠에 입단하면서 "챔피언스리그에 출전하고 싶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그 정도로 데뷔에 대한 열망이 컸다. 하지만 성적에서는 다소 아쉬움을 남겼다. 지난 시즌 총 12골에 도움 7개를 기록했으나 챔피언스리그 8경기에서는 득점 없이 도움 2개만을 올리는데 그쳤다.

그러나 지난 시즌 막판부터 이날 경기까지 손흥민은 레버쿠젠이 다시 본선 무대에 올라서는 데 매번 결정적 역할을 했다. 지난 시즌 베르더 브레멘과의 정규리그 최종전에서 레버쿠젠은 손흥민의 결승골로 챔피언스리그 진출 마지노선인 4위를 지킬 수 있었다. 챔피언스리그 예선 1차전에서 코펜하겐에 맞서 결승골을 넣어 팀의 대승을 주도했다.

손흥민은 올 시즌이 시작한지 한 달이 채 지나지 않았음에도 총 3골을 터뜨렸다. '별들의 무대'인 챔피언스리그 본선에서도 골을 넣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장병호기자 solanin@metroseoul.co.kr

'몬스터' 류현진 복귀 초읽기

코리안 몬스터 류현진(27·사진)이 부상을 털고 출격 준비를 마쳤다.

류현진은 28일 "오늘 2이닝 동안 시뮬레이션 게임 투구를 했는데 통증을 전혀 못 느꼈다"면서 "이번 주말에는 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돈 매팅리 감독은 "오늘 하루 좋은 상태가 괜찮았다. 내일 몸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고 복귀 시점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류현진은 이날 미국 애리조나주 피닉스 체이스필드에서 메이저리그 LA 다저스와 애리조나 다이아몬드백스 간 경기에 앞서 이같이 밝혔다고 MLB닷컴은 전했다.

이에 따라 류현진은 이르면 오는 31일 샌디에이고 파드리스와의 3연전 시리즈 최종전에서 선발 등판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류현진은 지난 13일 애틀랜타 브레이브스와의 원정경기 중 오른쪽 엉덩이 중둔근과 이상근 염좌로 15일짜리 부상자 명단(DL)에 올랐다.

류현진은 지난 2년간 파드리스전에 모두 4차례 출전해 3승(방어율 1.71)을 기록했으며 원정 경기에서도 1승(방어율 0.69)의 호기록을 선보인 바 있다.

/장병호기자

커쇼 NL 다승 단독 선두

시즌 16승, 평균자책점 1.73

'현역 최고 투수'로 꼽히는 클레이턴 커쇼(26·LA 다저스·사진)가 올 시즌 메이저리그에서 가장 빨리 16승 고지를 밟았다.

커쇼는 28일 미국 애리조나주 체이스필드에서 열린 애리조나 다이아몬드백스와 원정경기에 선발 등판해 8이닝 동안 6안타를 내주고 1실점하는 호투를 펼쳤다. 볼넷은 2개뿐이었고 삼진은 10개를 잡았다.

다저스가 3-1로 승리하면서 커쇼는 16승(3패)째를 수확, 메이저리그 전체 다승 단독 선두로 올라섰다.

평균자책점은 1.82에서 1.73으로 더 낮췄다. 올해 메이저리그에서 규정 이닝을 채운 투수 중 1점대 평균자책점을 기록 중인 투수는 커쇼뿐이다.

커쇼는 올해 등 근육 부상으로 시즌 중 한달 동안 재활에 돌입했음에도 다승 선두 자리를 꿰차며 2011년과 2013년에 이어 생애 세 번째 내셔널리그 사이영상을 수상 가능성을 키웠다.

'체이스필드 징크스'도 커쇼의 발목을 잡지 못했다. 커쇼는 경기 전까지 개인 통산 체이스필드 등판에서 9경기 3승 6패 평균자책점 4.10으로 부진했다.

올해 5월 18일에는 체이스필드에서 1⅔이닝 6피안타 7실점의 수모를 겪기도 했지만 이날은 달랐다.

커쇼는 1회말 선두타자 엔더 인시아테에게 스트레이트 볼넷을 내줬지만 클리프 페닝턴을 삼진 처리하고, 애런 힐을 좌익수 뜬공으로 돌려세워 한숨을 돌렸다. 투구 감각을 찾은 커쇼는 마크 트럼보를 헛스윙 삼진으로 처리하며 첫 이닝을 마쳤다. 3-0으로 앞선 3회 알프레도 마르테에게 좌익수 쪽 2루타를 맞고, 조던 파체코에게 좌전 적시타를 내줘 실점했지만 이후 애리조나 타선을 완벽히 제압했다.

커쇼는 2011년 7월 16일 이후 2년 1개월 만에 체이스필드 원정 경기에서 승리투수가 됐다.

/장병호기자

남자농구 16년 만에 세계 무대 도전

30일 개막 스페인 농구 월드컵 출전

한국 남자농구 대표팀 월드컵 출국. /연합뉴스

한국 남자농구가 20년 만에 세계 최고 무대에서 승리에 도전한다.

유재학 감독이 이끄는 한국 남자농구는 30일(현지시간) 스페인에서 개막하는 2014 국제농구연맹(FIBA) 농구 월드컵 출격을 앞두고 있다.

4년에 한 번 열리는 이 대회는 올해가 17회째로 2010년 터키 대회까지는 농구 세계선수권대회라는 이름으로 열렸다. 올해 대회부터 FIBA 월드컵으로 대회 명칭을 변경했다.

대륙별 지역 예선을 통과한 24개 나라가 출전하며 4개 조로 나뉘어 조별리그를 벌인 뒤 각 조 상위 4개 나라가 16강 토너먼트에 올라 순위를 정한다.

조별리그는 그라나다와 세비야, 빌바오, 라스팔마스 등 4개 도시에서 진행되고 16강 이후로는 마드리드와 바르셀로나에서 경기가 펼쳐진다. 특히 이 대회는 한국 남자농구가 16년 만에 세계무대에 도전장을 던지는 무대다.

1998년 그리스 세계선수권을 끝으로 세계선수권과 올림픽 본선에 나가지 못한 우리나라는 지난해 필리핀에서 열린 아시아선수권에서 3위에 올라 이번 대회 본선에 진출했다.

FIBA 랭킹 31위인 한국은 리투아니아(4위), 호주(9위), 슬로베니아(13위), 앙골라(15위), 멕시코(24위)와 함께 D조에 편성돼 라스팔마스에서 조별리그를 치른다. 이번 대회에서 승리를 따낼 경우 1994년 캐나다 대회 이후 20년 만에 세계무대에서 승리를 맛보게 된다.

우리나라는 양동근(모비스)과 김태술(KCC), 김선형(SK) 등이 가드 라인에 포진했고 문태종(LG), 조성민(KT) 등이 외곽을 책임진다. 골밑에는 김주성(동부), 오세근(상무), 김종규(LG), 이종현(고려대)이 등이 가며 나설 예정이다.

/[illegible]

프로야구 전적

■ 잠실

팀	1-3	4-6	7-9	R
삼성	000	001	112	5
두산	300	030	00X	6

[illegible]

■ 문학

팀	1-3	4-6	7-9	R
LG	100	000	001	2
SK	100	101	01X	4

[illegible]

■ 대전

팀	1-3	4-6	7-9	R
넥센	220	100	140	10
한화	100	000	111	4

[illegible]

■ 사직

팀	1-3	4-6	7-9	R
KIA	002	012	000	5
롯데	004	020	00X	6

[illegible]

처음
그 부드러운
느낌처럼
부드러운 소주
처음처럼